

2024년 경제·금융환경 전망

윤 성 훈 (선임 연구위원)

2023.10.5.



목 차

I. 세계경제 동향

II. 국내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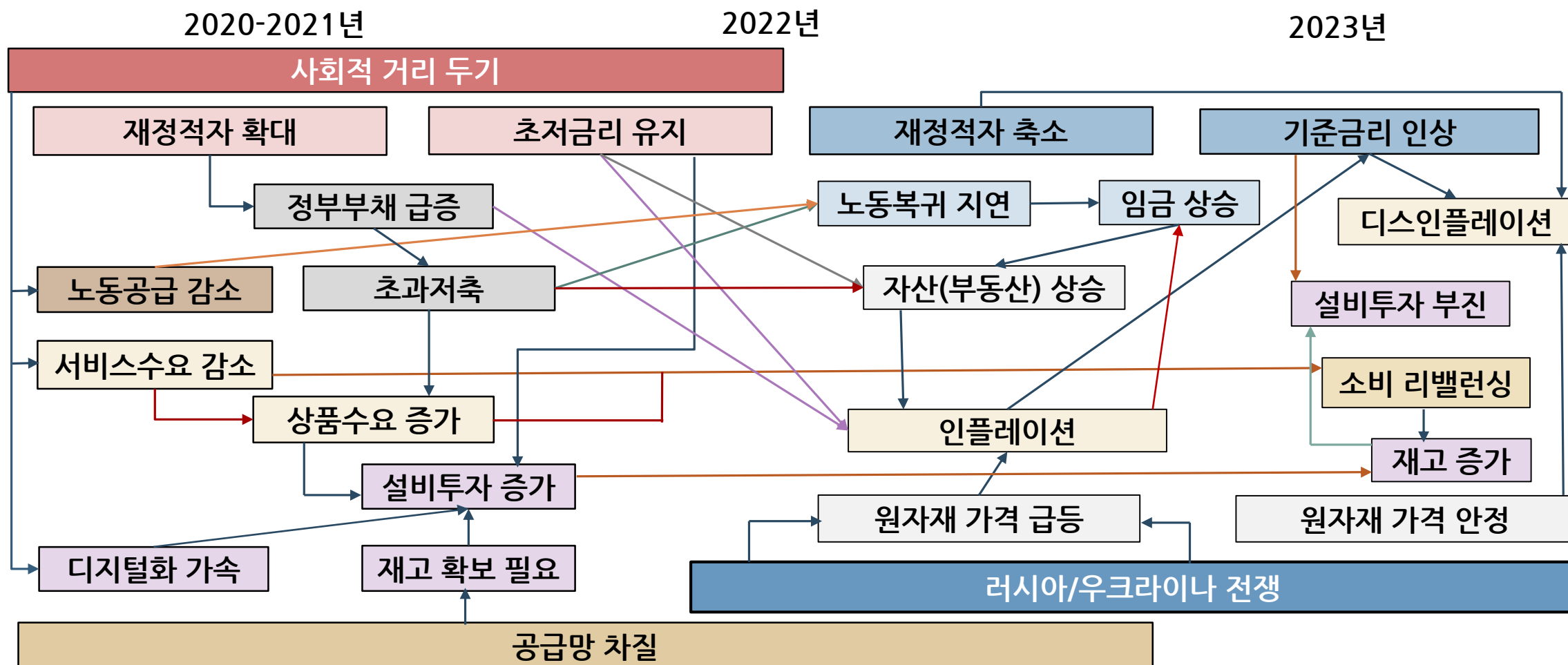
III.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I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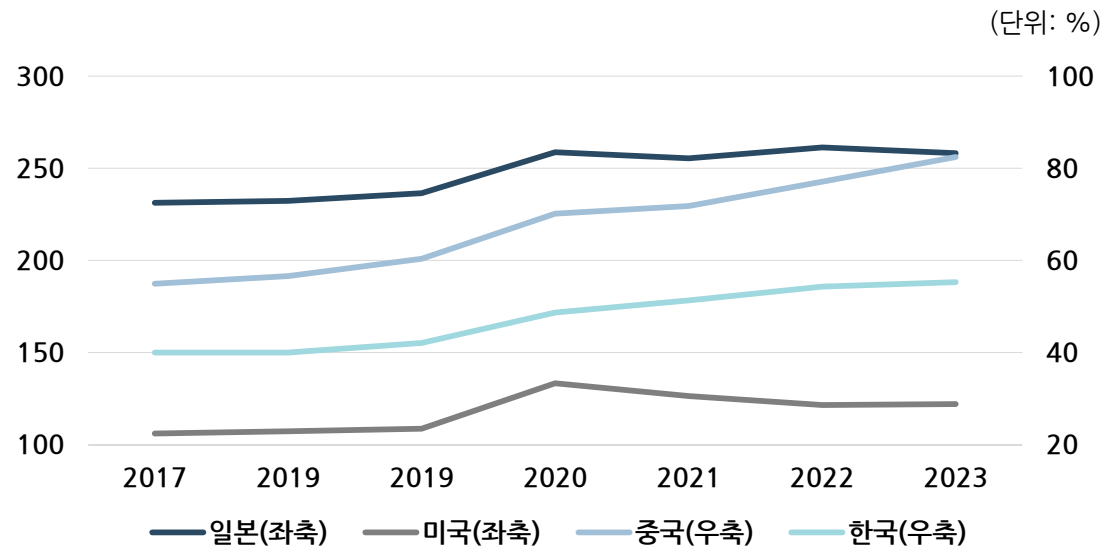
충격이전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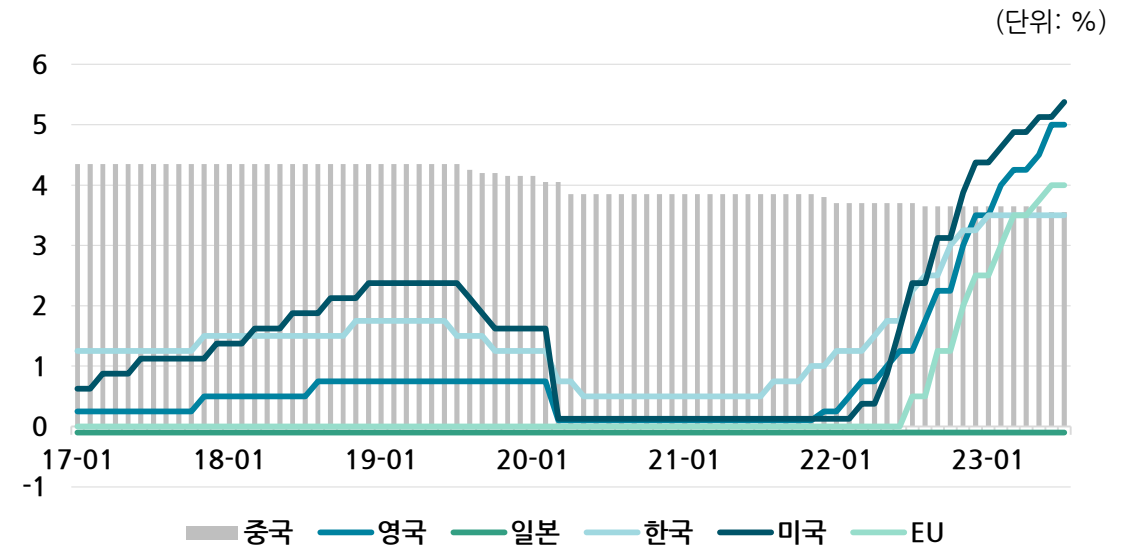
재정정책 정상화 및 통화정책 긴축 강화

- 코로나19 진정, 사회적 거리 두기 철폐,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 등에 따라 주요국은 재정정책 정상화 및 통화정책 긴축 강화
 - 반면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유지
 - 일본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아 제로금리 정책 지속(그러나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 유도)

주요국 정부부채(GDP 대비) 비율



주요국 기준금리



주: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4)

자료: BIS Statistics

GDP 성장세 둔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재정정책 정상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2023년 들어 GDP 성장세 둔화
 -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오프닝과 엔화 약세에 힘입어 GDP 성장세 개선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중국은 소비 리밸런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차대조표 조정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GDP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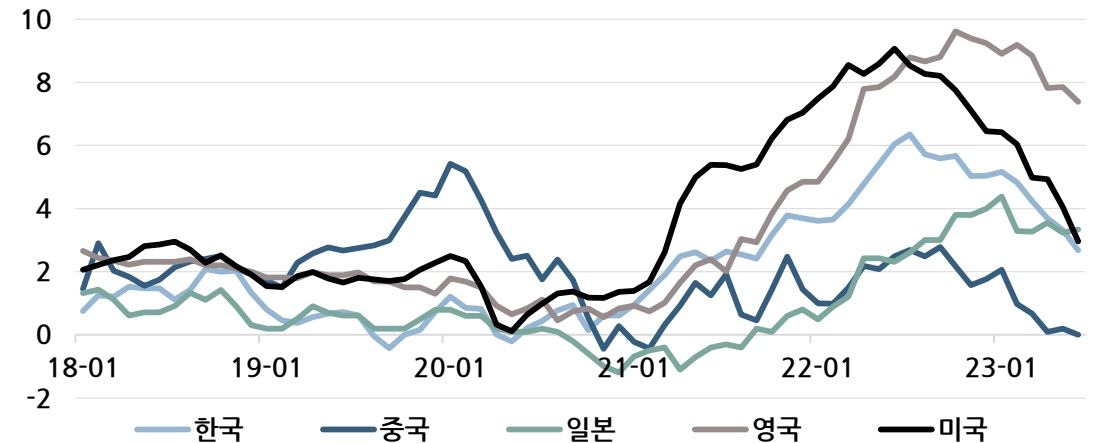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대비
한국	2.9	2.2	-0.7	4.1	2.6	1.5	7.6
중국	6.8	6.0	2.2	8.4	3.0	5.2	20.0
일본	0.6	-0.4	-4.3	2.1	1.1	1.4	0.2
영국	1.7	1.6	-11.0	7.6	4.0	0.4	0.0
미국	2.9	2.3	-2.8	5.9	2.1	1.8	7.0

주: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4)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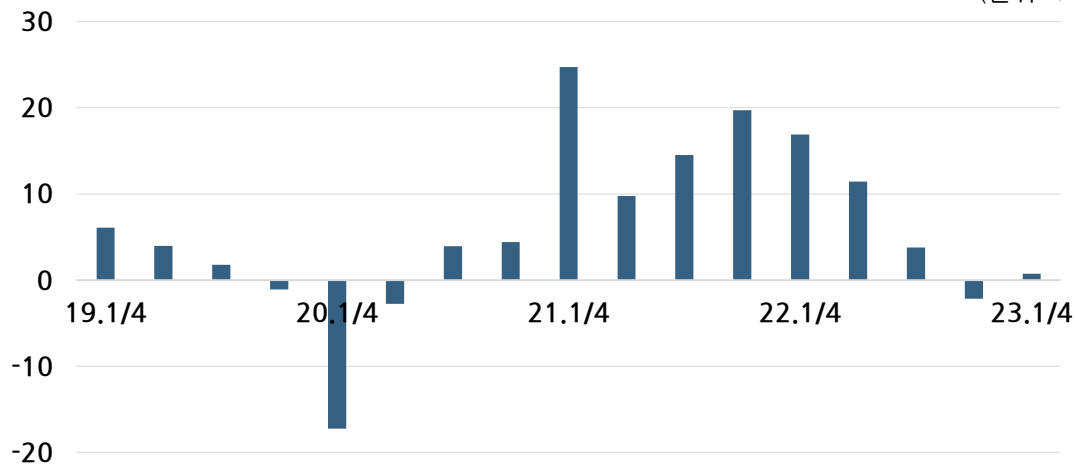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GDP 성장세 둔화는 설비투자 위축 때문

- 미국(예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으니 2023년 들어 위축
 - 코로나19 충격 직후 설비투자 증가 이유는 경제 디지털화 가속, 공급망 차질로 재고 확보 필요 증대,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상품 수요 확대 등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고용비용 증가, 소비 리밸런싱에 의한 재고 증가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 위축

미국 설비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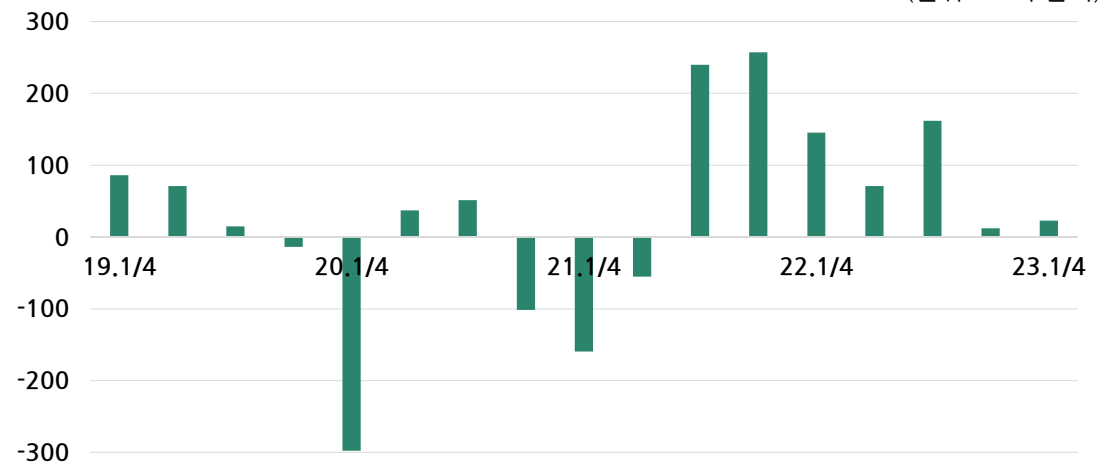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미국 재고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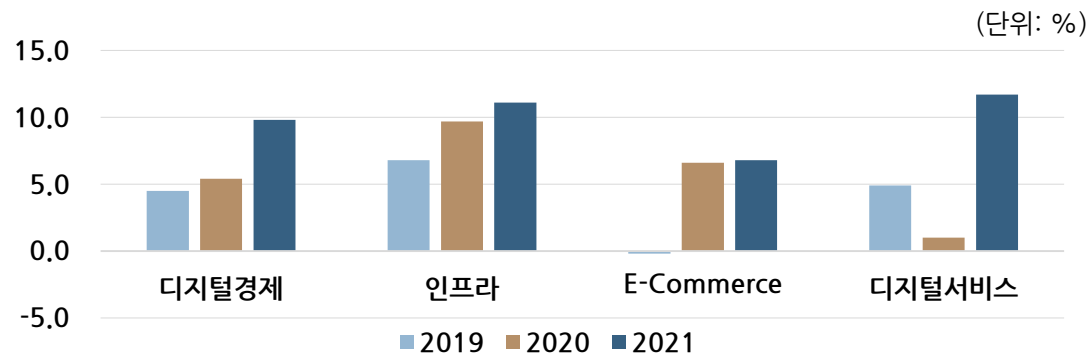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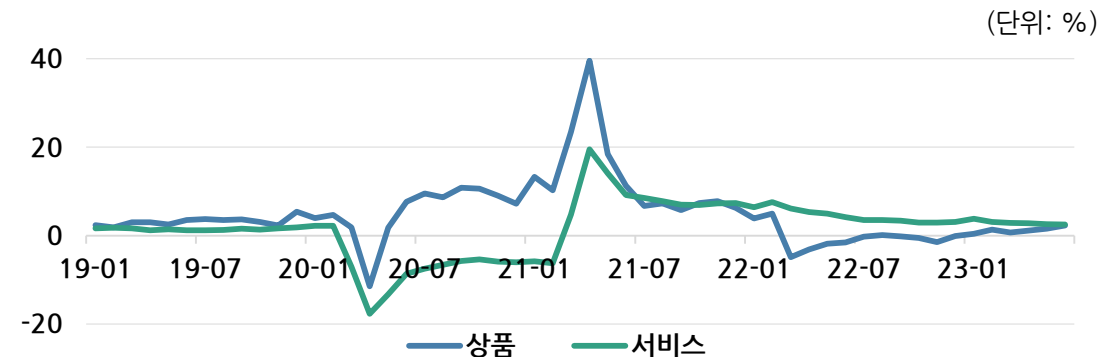
[참고] GDP 설비투자 증감 원인

미국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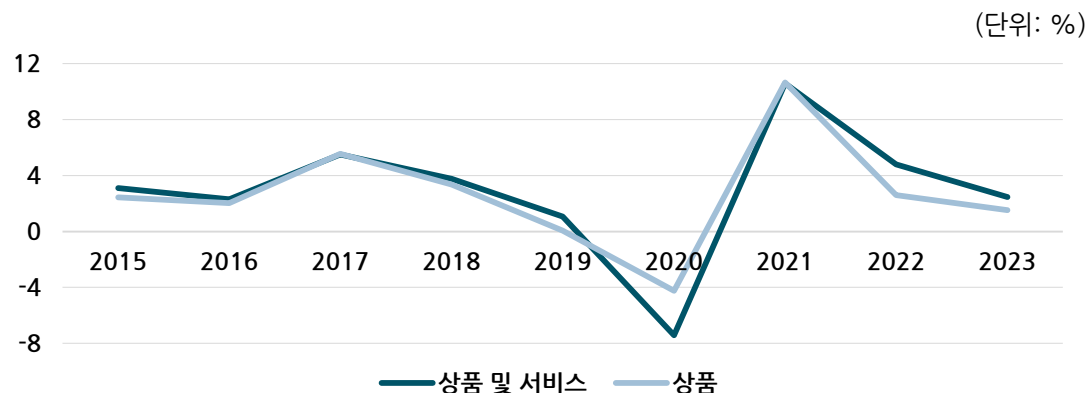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소비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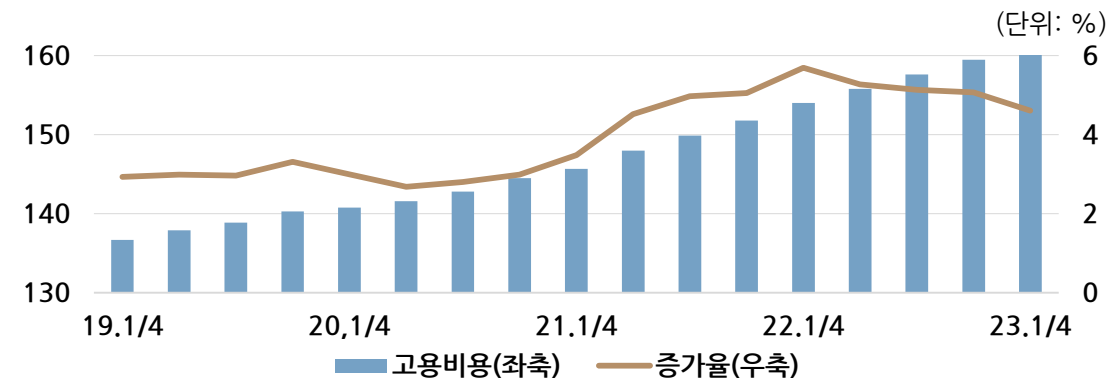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주: 물량 기준,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4)

미국 고용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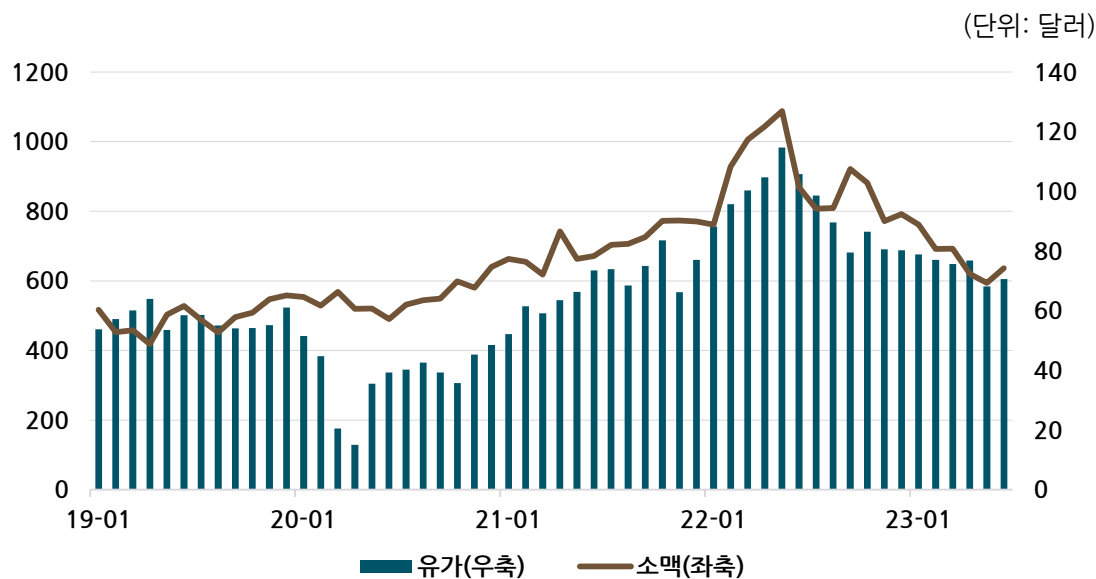


주: 2005=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디스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안정이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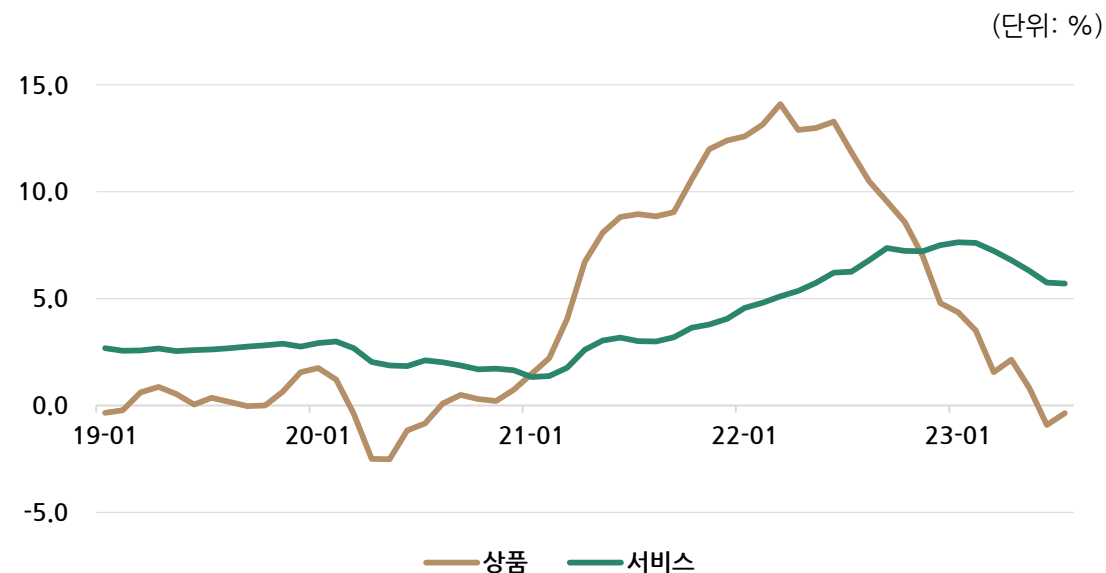
-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안정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디스인플레이션)에 기여
-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5%를 상회하고 sticky하여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주저

국제유가 및 소맥 가격



주: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소맥은 부셸당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화시스템

미국 상품 및 서비스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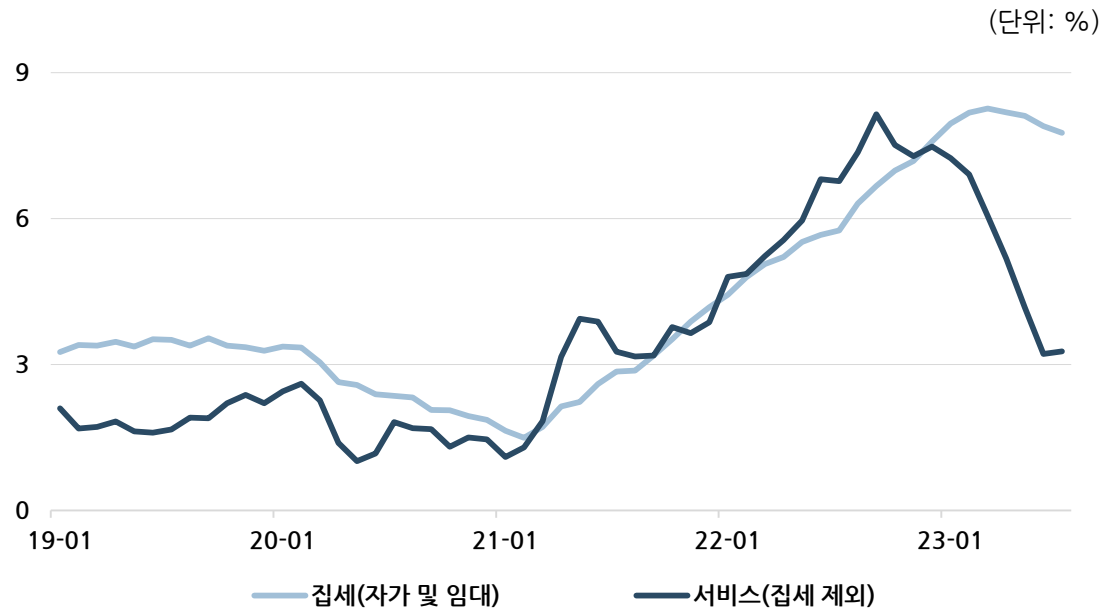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참고] 미국 서비스물가 상승률 Sticky 원인

- 미국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공급 부진 기대, 재택근무 확대, 고정금리 대출, 초과저축 등에 의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세 지속 때문
-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

미국 집세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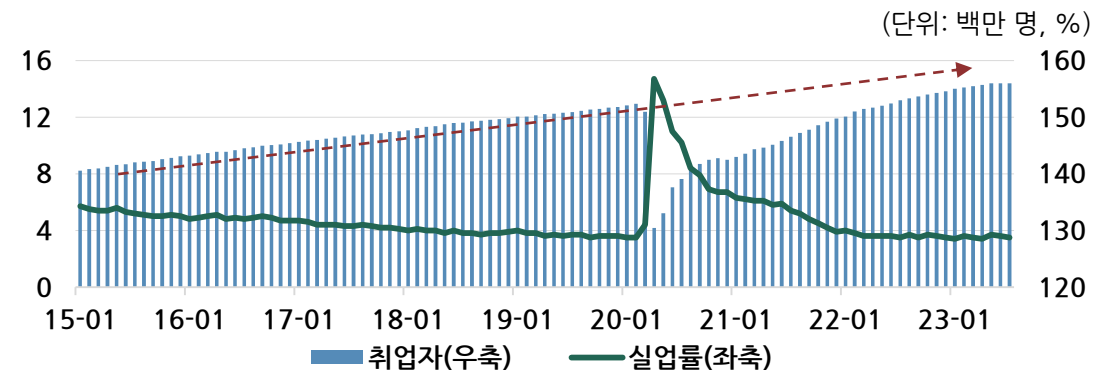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미국 주택가격 상승 원인

- 주택공급 부진 기대
- 재택근무 확대
- 고정금리 대출
- 초과저축/임금 상승

미국 취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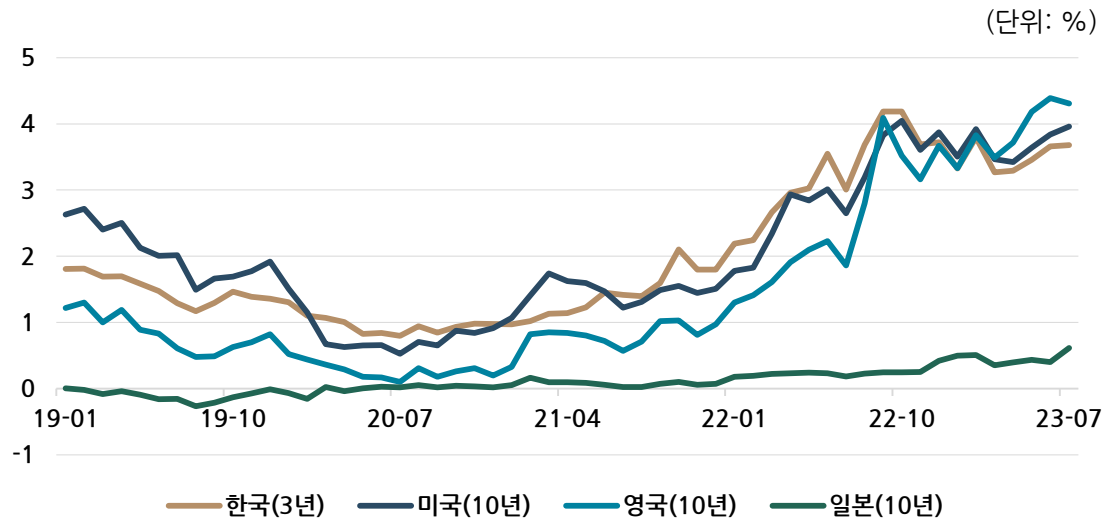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Statistics

SVB 및 CS 파산에도 금융시장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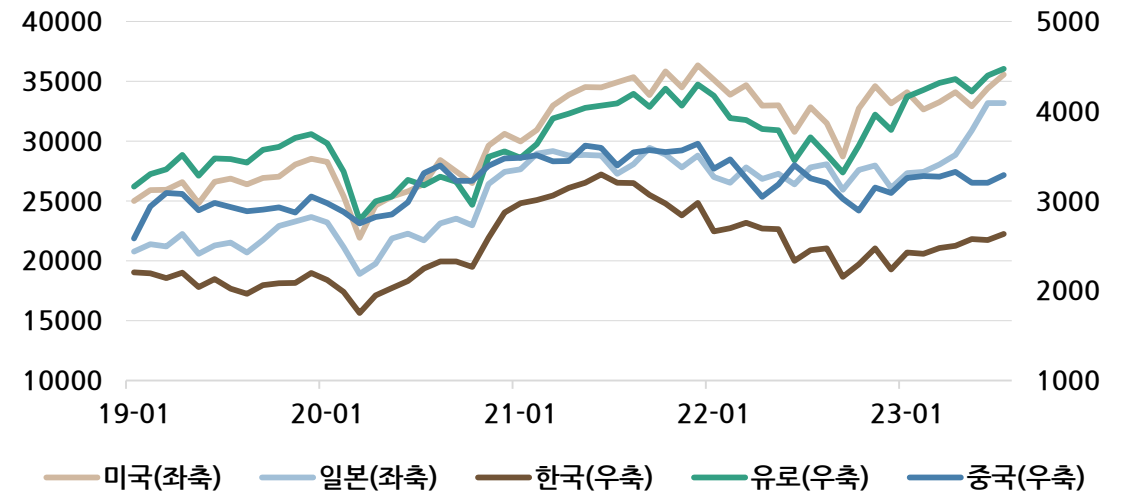
- SVB 파산 및 크레딧 스위스 부실(투자 손실)에도 해당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금융시장 안정세 회복
-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주식시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국채 수익률은 국제유가 불안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로 다시 상승

주요국 국채 수익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주가지수



주: 한국(KOSPI), 미국(DJ), 일본(NIKKEI), 유로(Euro STOXX), 중국(SHCOM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SVB 파산 원인

-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유가증권이고 이 중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79%를 차지하여 금리 1%p 상승 시 100억 달러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설비투자 침체로 대출수요가 위축되자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였고, 금리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
 - 바젤위원회의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대해 감독당국의 감독 부재
-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의 대규모 유가증권 매도 손실 및 평가 손실이 알려지면서뱅크런 발생

SVB 자산 및 부채

(단위: 억 달러)

자산		부채	
유가증권	1,202	예금	1,731
합계	2,118	합계	1,956

주: 2022년 말 기준
자료: SVB Financial Group(2023.2), 연차보고서

SVB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만기 구성

(단위: 억 달러, %)

구분	1년 이내	1-5년	5-10년	10년 초과	합계
매도가능증권	11	148	30	72	261
만기보유증권	1	7	45	860	913
계	12	155	75	932	1,174
구성비	1	13	6	7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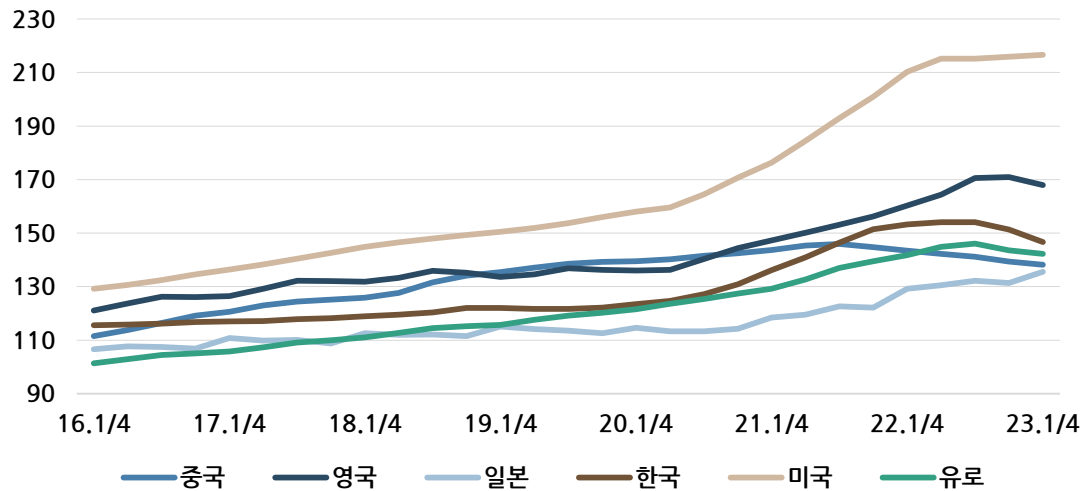
주: 2022년 말 기준
자료: SVB Financial Group(2023.2), 연차보고서

주요국 주택가격은 국가별로 차별화

- 코로나19 충격에도 상승하던 주요국 주택가격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하락
 - 중국의 경우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충격 직후 하락세 지속
- 미국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준금리 간의 관계를 볼 때 향후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적 예상

주요국 주택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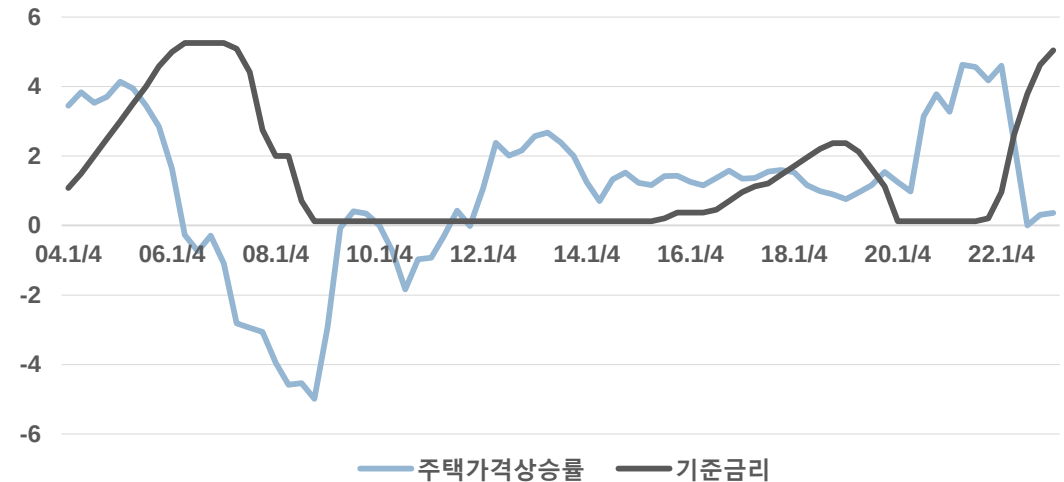
(단위: %)



주: 2010=100
자료: BIS Statistics

미국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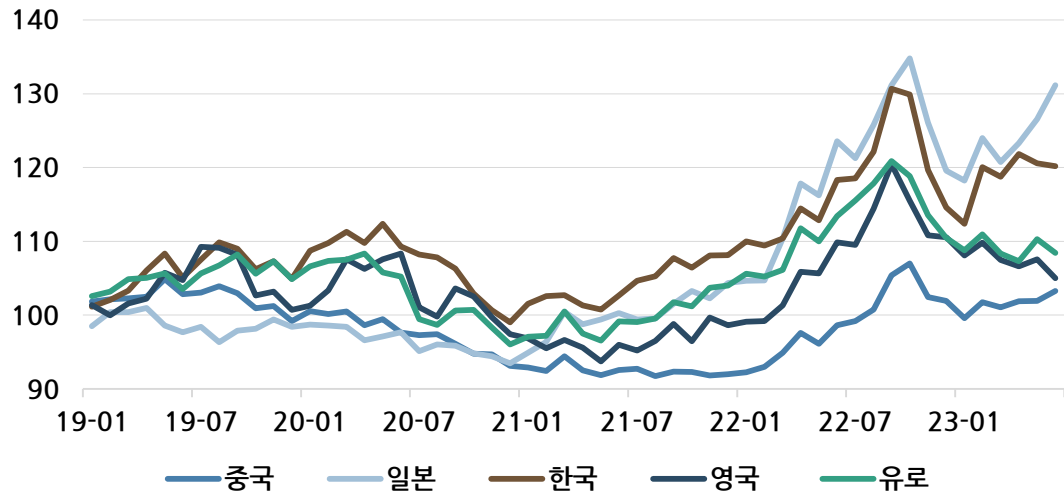


주: 주택가격 2010=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BI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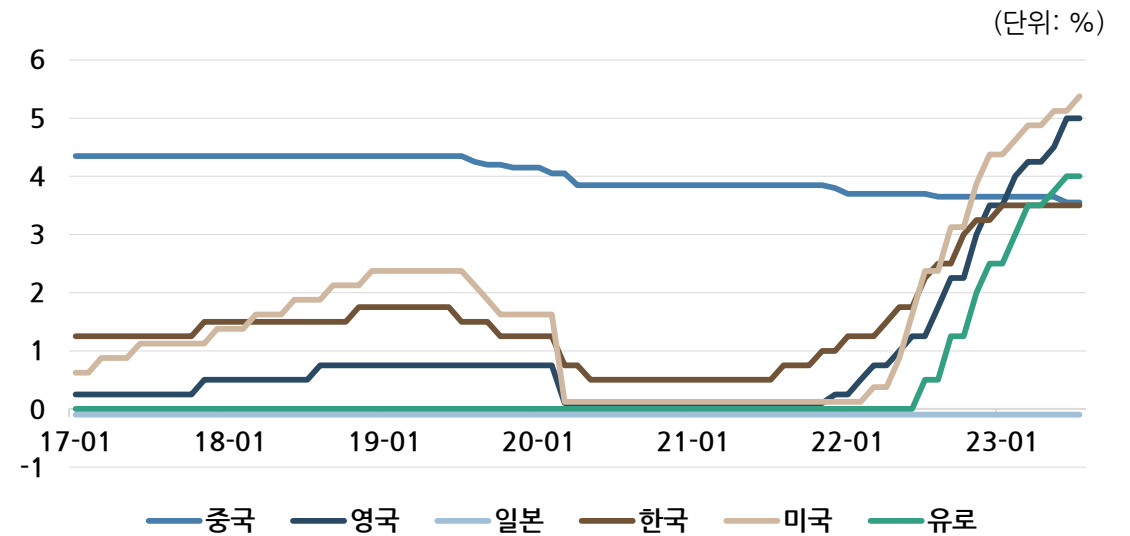
주요국 대미 달러 환율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좌우

- 2023년 들어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한국, 일본, 중국은 환율 약세,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된 영국과 유로 지역은 환율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로 달러 강세
- 코로나19 충격 이전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

주요국 대미 환율



주요국 기준금리



자료: BIS Statistics



국내경제 동향

GDP 성장세 둔화

- 우리나라 역시 GDP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 리밸런싱에 따른 소비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불황형 흑자)하여 GDP 성장세 하락을 일부 상쇄

국내경제 동향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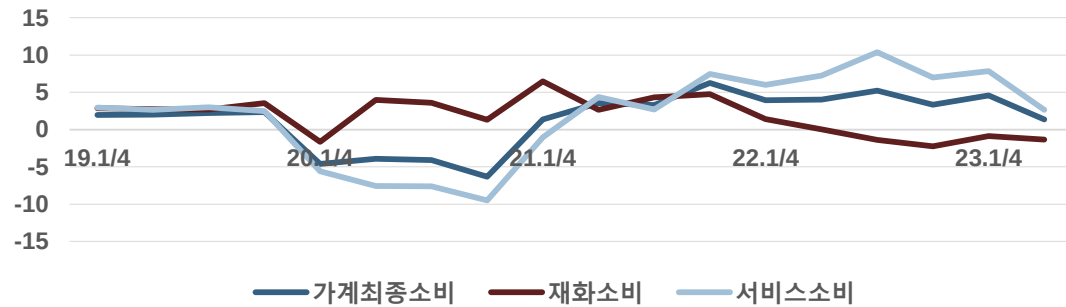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023년
GDP	2.2	-0.7	4.3	2.6	0.9	1.8	1.4
민간소비	2.1	-4.8	3.6	4.1	3.0	1.0	2.0
건설	-1.7	1.5	-1.6	-2.8	2.1	-0.5	2.7
설비	-6.6	7.2	9.3	-0.9	4.9	-10.3	-3.0
지적재산생산물투자	3.1	3.4	6.1	5.0	2.8	3.5	3.1
재화수출	0.2	-1.7	11.1	3.6	-1.1	2.6	0.7
재화수입	-1.9	-3.1	10.1	4.3	1.8	-3.4	-0.8
실업률	3.8	3.9	3.7	2.9	3.0	2.8	2.9
경상수지	594	759	852	298	24	246	27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전망보고서(2023.8)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세계경제와 동일한 흐름

가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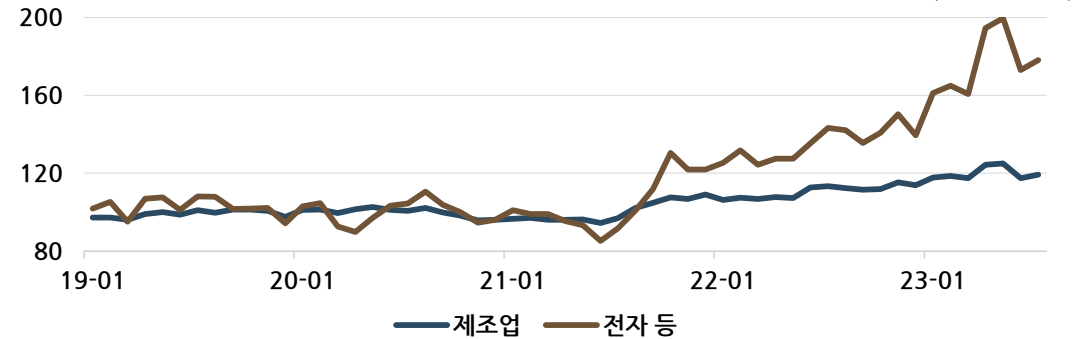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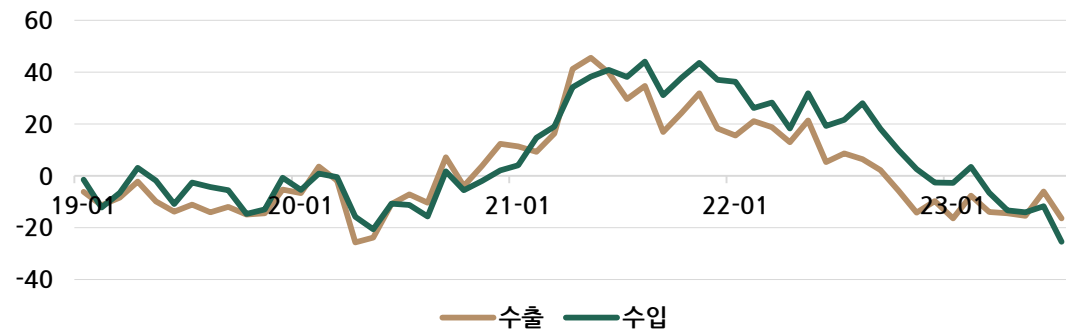
(2020=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출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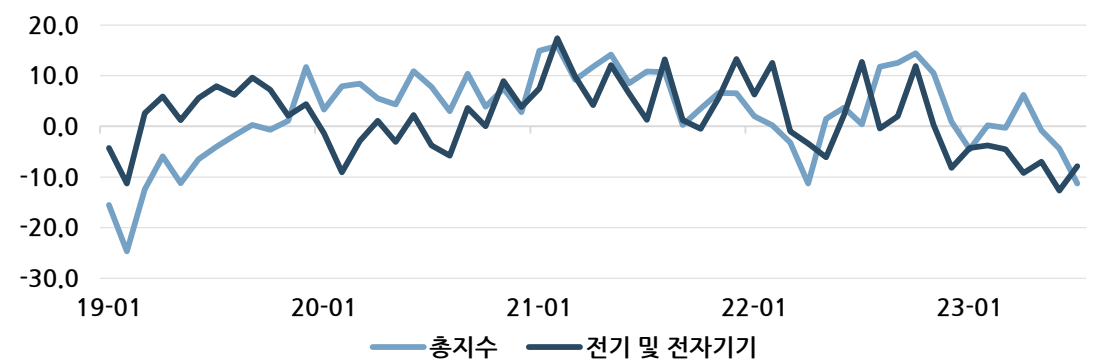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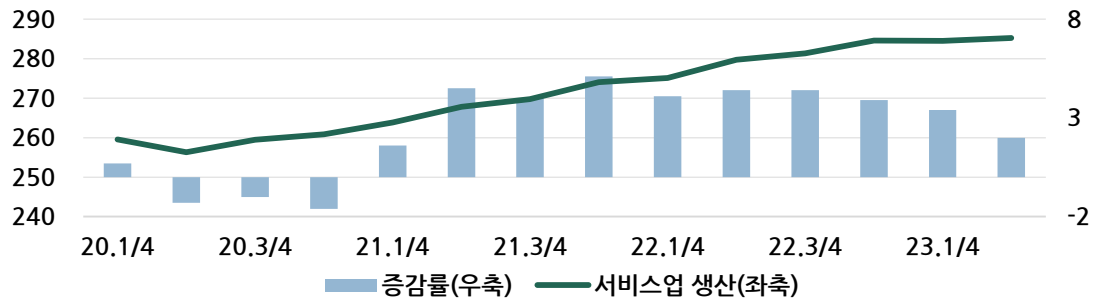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생산, 고용, 임금 등도 세계경제와 동일한 흐름

서비스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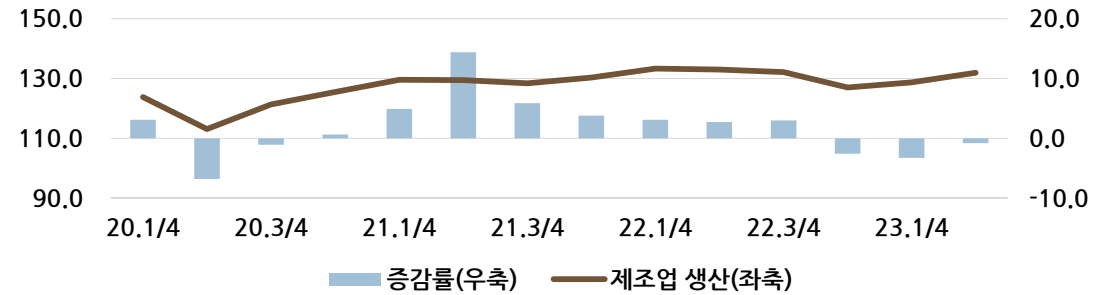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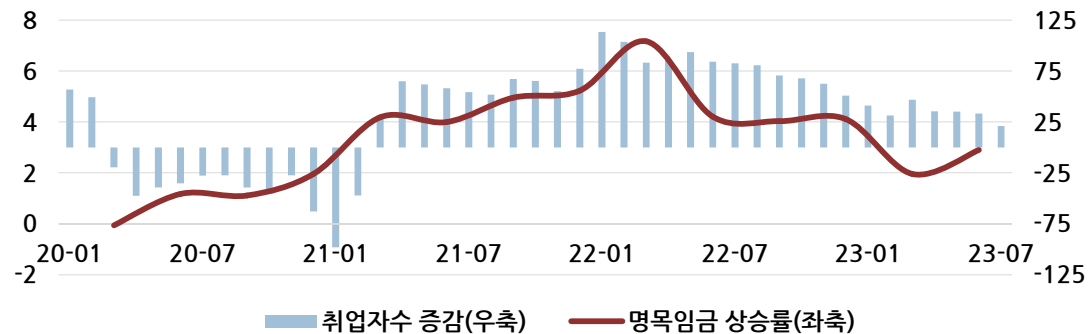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취업자수 증감 및 명목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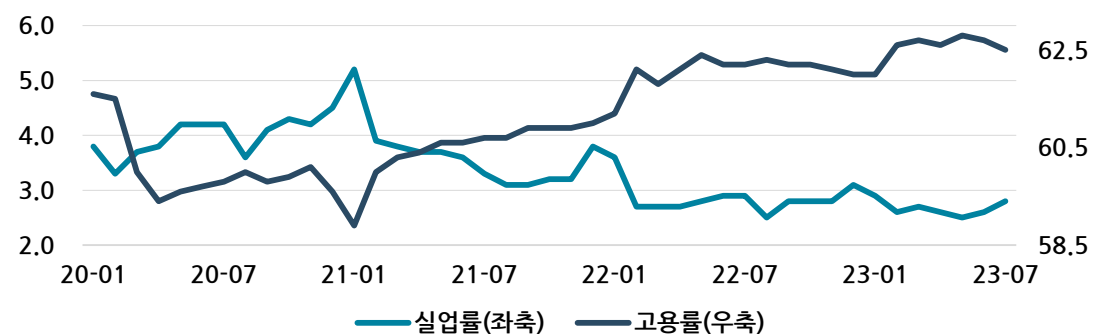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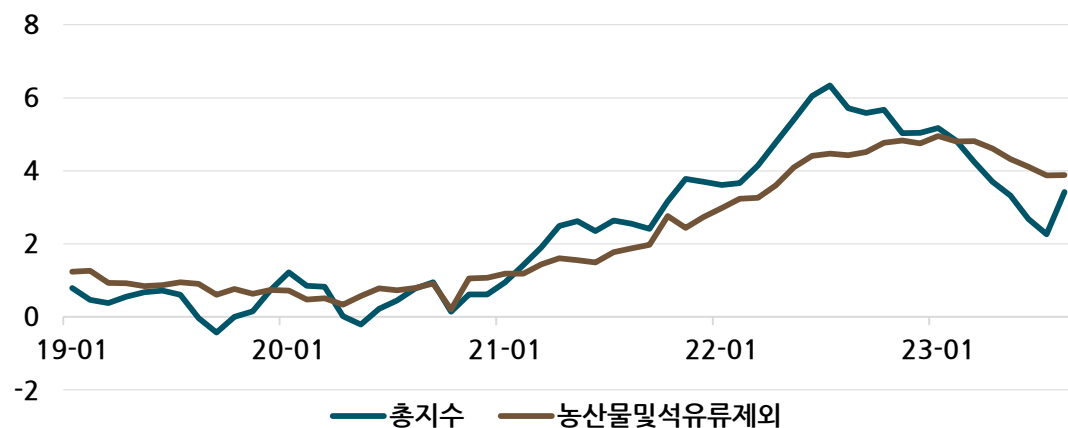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국제유가 안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률 둔화세가 크지 않으며, 서비스 물가는 미국과 달리 주택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ticky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취약한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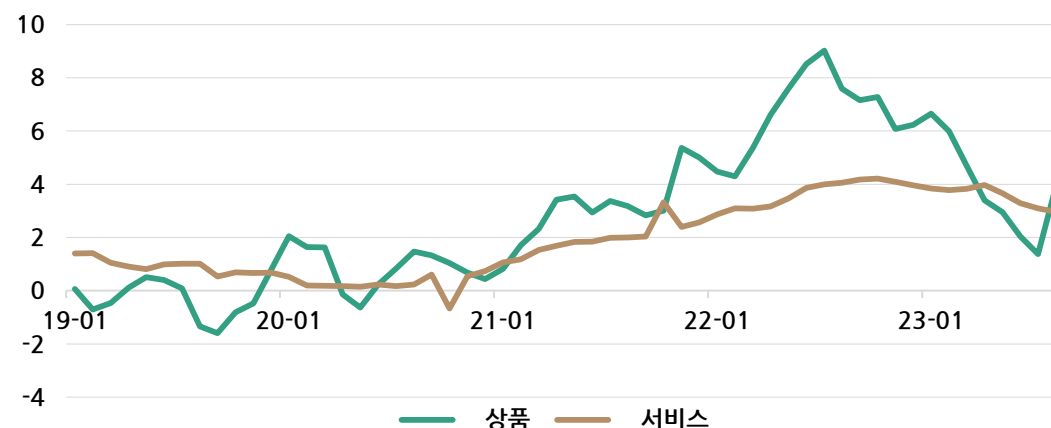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물가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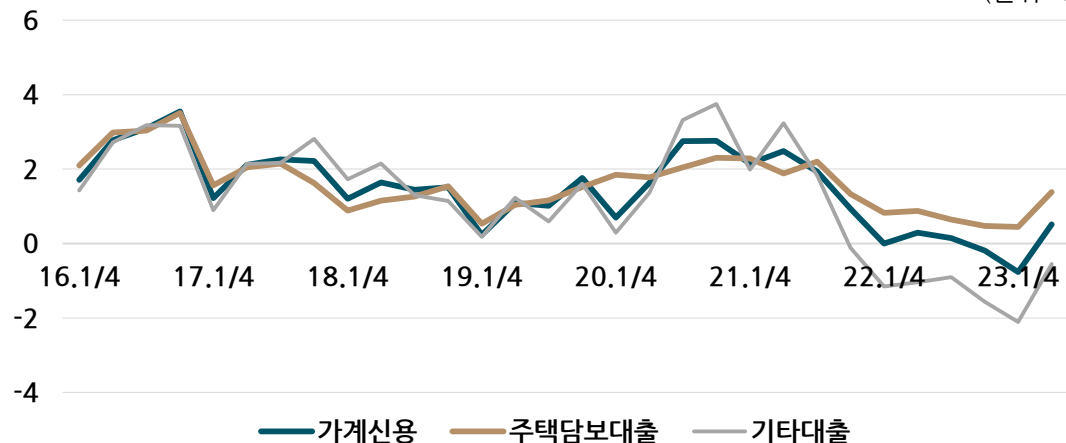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 주택가격 하락 후 상승

- 2022년 하락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3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
 - 특례보증자리론, 50년 주담대 등에 따른 현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
-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가격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기대비 하락 후 상승
 - 서울 전체로는 3/4분기 들어, 강남의 경우 2/4분기 들어 전기대비로는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하락

가계신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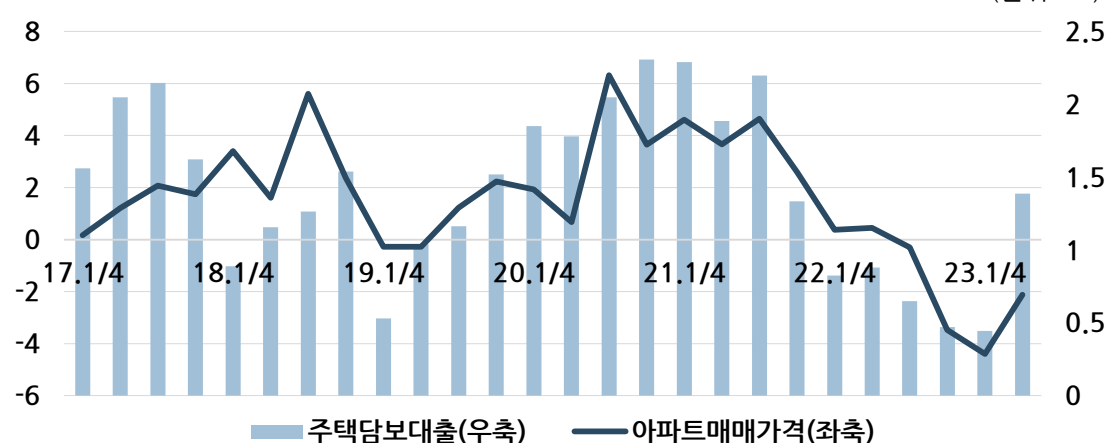
(단위: %)



주: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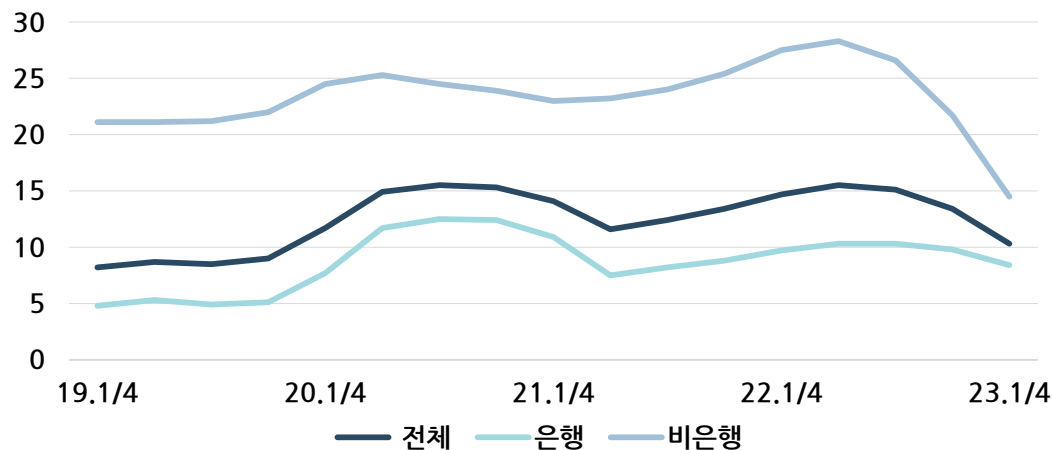
주: 전기대비, 아파트매매가격은 서울가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 코로나19 충격 이후 유동성 확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높아진 기업대출 증가율은 2023년 들어 크게 둔화
 -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대기업은 운전자금 수요로 높은 증가세 지속

기업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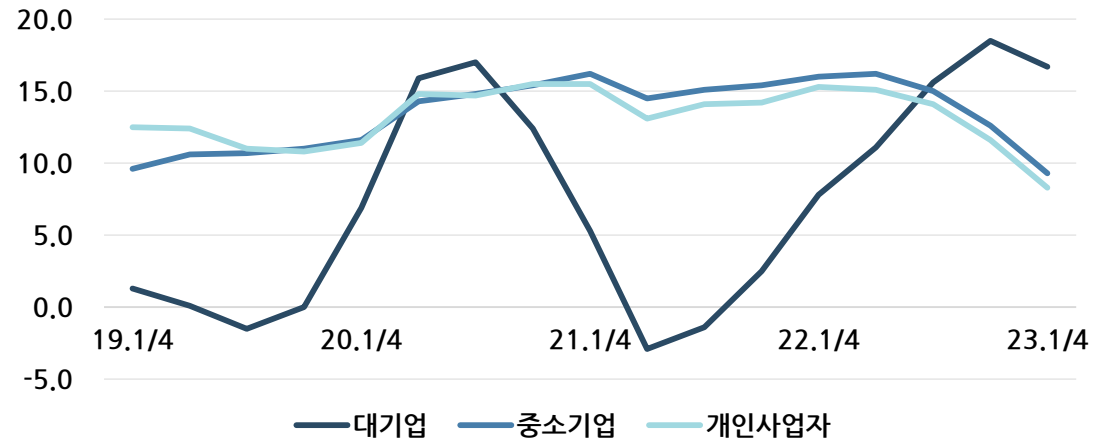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6)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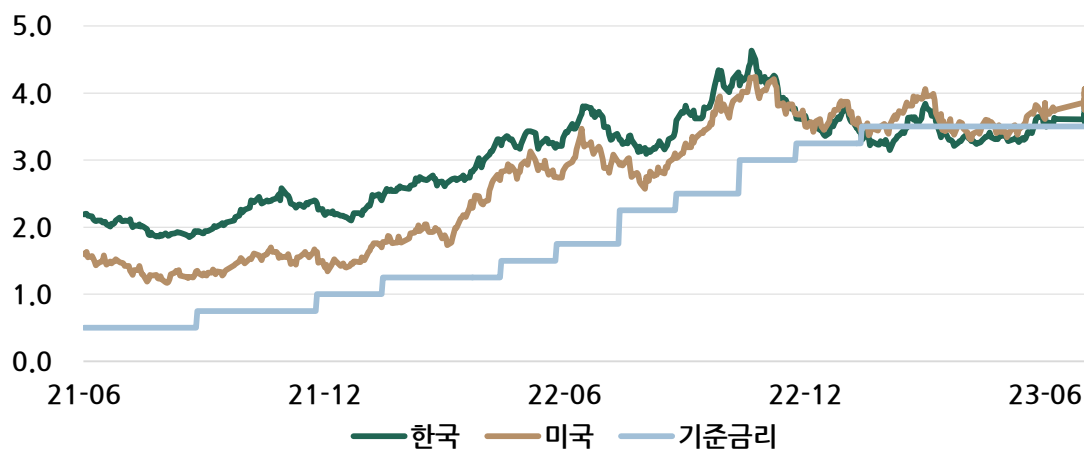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6)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

- 2022년말부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같이 하락
 - 향후 시장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 향배에 따라 결정 예상
-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신용 스프레드는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상회

한국(3년)과 미국(10년)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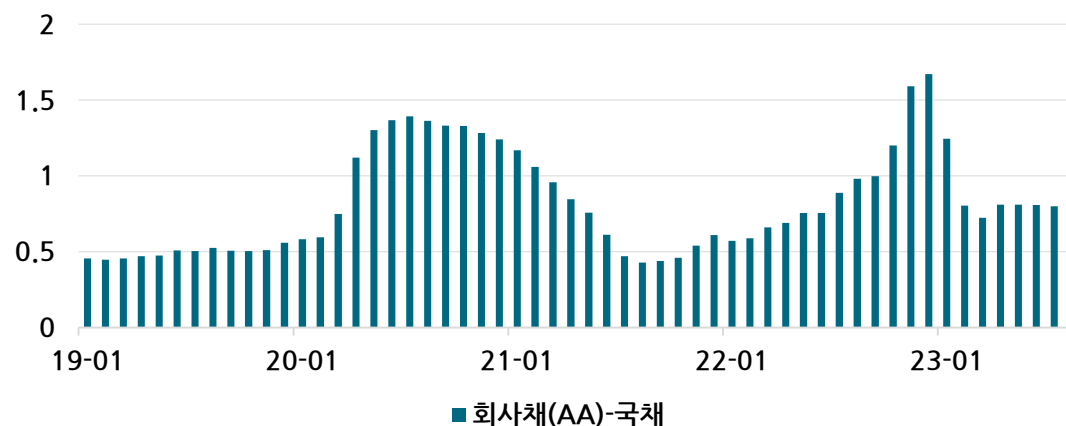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시스템, FRB St. Louis Statistics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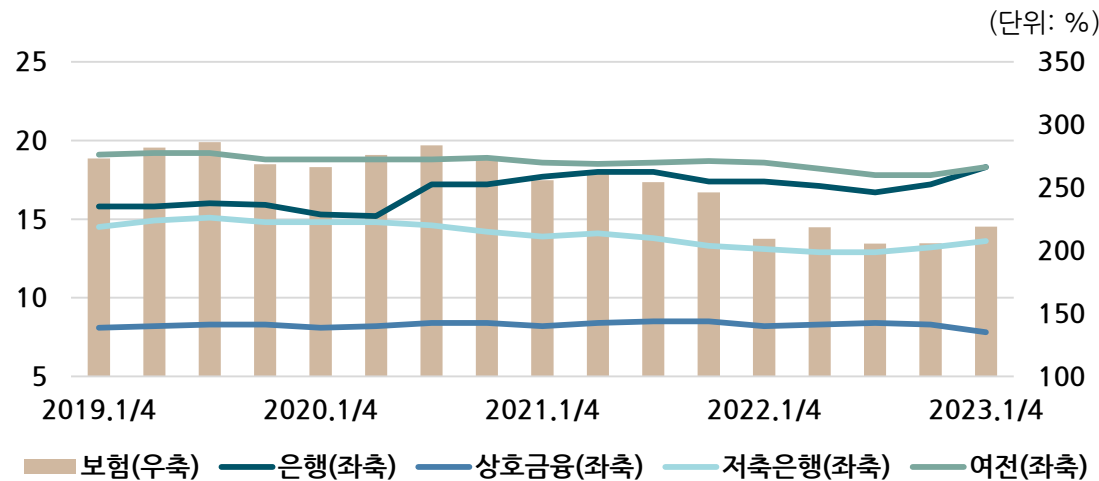


주: 회사채(3년, AA)-국채(3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산업 건전성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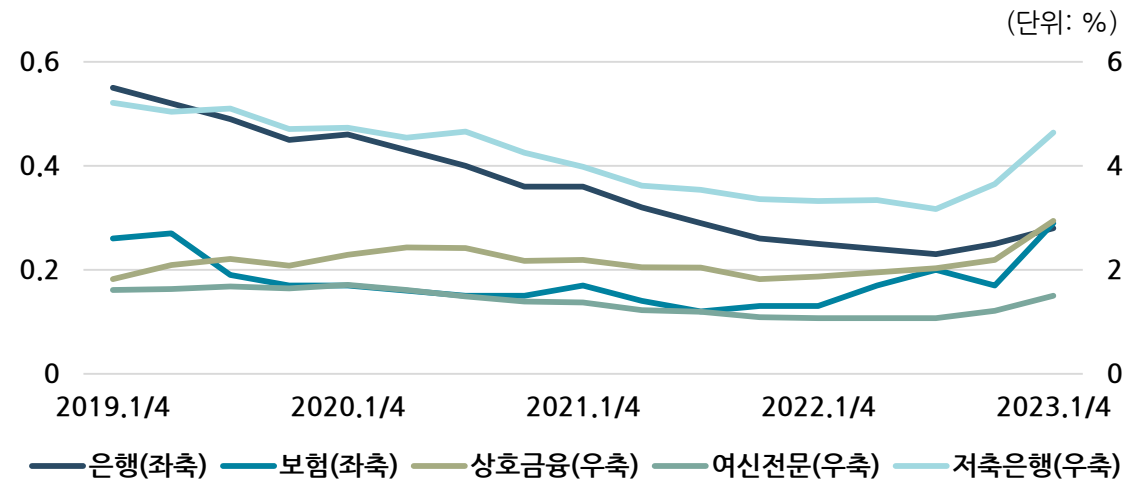
- 2023년 들어 상호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의 경우 자본비율이 소폭 개선
 -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보험업은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매도가능증권 평가손)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들어 모든 금융업에서 상승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은행을 제외하고 이전 수준을 상회

금융업권별 자본비율



주: 은행(총자본), 보험(위험기준자기자본), 상호(순자본), 저축(자기자본), 여전(조정자기자본)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6)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6)



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국내외 성장률 2023년 수준 유지 전망

-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수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개선 전망
 - 우리나라는 소비 리밸런싱 마무리로 재화 소비와 수출, 그리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충격 이전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더 낮은 저성장)으로 진입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01-08	2011-19	2023-28
세계	2.8	-2.8	6.3	3.4	2.8/3.0	3.0	4.2	3.5	3.0
선진국	1.7	-4.2	5.4	2.7	1.3/1.5	1.4	2.2	1.9	1.6
개도국	3.6	-1.7	6.9	4.0	3.9/4.0	4.2/4.1	6.5	4.8	4.0
유로	1.6	-6.1	5.4	3.5	0.8/0.9	1.4/1.5	1.8	1.3	1.4
중국	6.0	2.2	8.5	3.0	5.2	4.5	10.7	7.3	4.1
일본	-0.4	-4.3	2.1	1.1	1.3/1.4	1.0	0.9	0.9	0.7
영국	1.6	-11.0	7.6	4.0	-0.3	1.0	2.1	2.0	1.4
미국	2.3	-2.8	5.9	2.1	1.6/1.8	1.1/1.0	2.2	2.2	1.8
한국	2.2	-0.7	4.1	2.6	1.5	2.4	4.9	2.9	2.2

주: / 이하 통계는 2023.7 수정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4, 2023.7)

국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수준 하회 전망

- 2024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2023년에 비해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새로운 균형(이전보다 높아진 상승률: 국제유가 안정이 전제)으로 진입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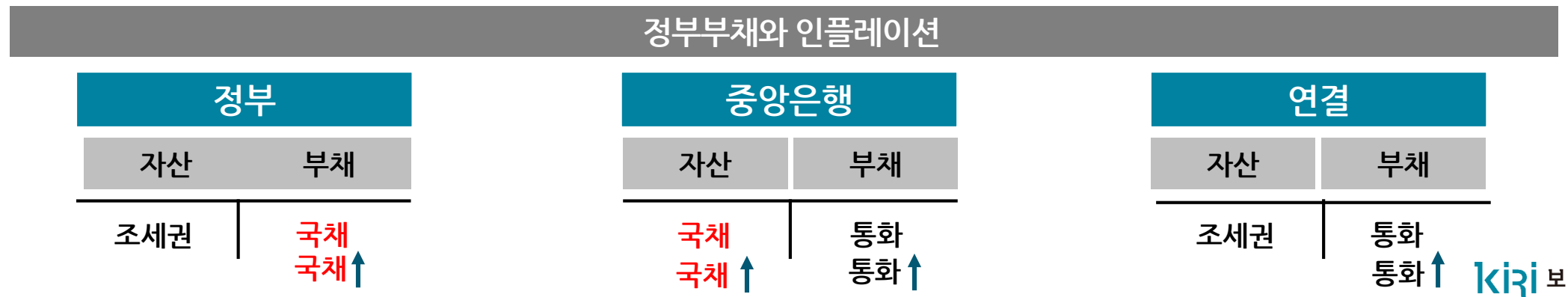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01-08	2011-19	2023-28
세계	3.5	3.2	4.7	8.7	7.0	4.9	4.3	3.5	4.4
선진국	1.4	0.7	3.1	7.3	4.7	2.6	2.2	1.5	2.5
개도국	5.1	5.2	5.9	9.8	6.5	5.2	6.8	5.2	5.7
유로	1.2	0.3	2.6	8.4	5.3	2.9	2.3	1.3	2.7
중국	2.9	2.5	0.9	1.9	2.0	2.2	2.4	2.5	2.2
일본	0.5	-0.0	-0.2	2.5	2.7	2.2	-0.1	0.6	1.8
영국	1.8	0.9	2.6	9.1	6.8	3.0	1.9	2.1	2.9
미국	1.8	1.3	4.7	8.0	4.5	2.3	2.8	1.8	2.5
한국	0.4	0.5	2.5	5.1	3.5	2.3	3.3	1.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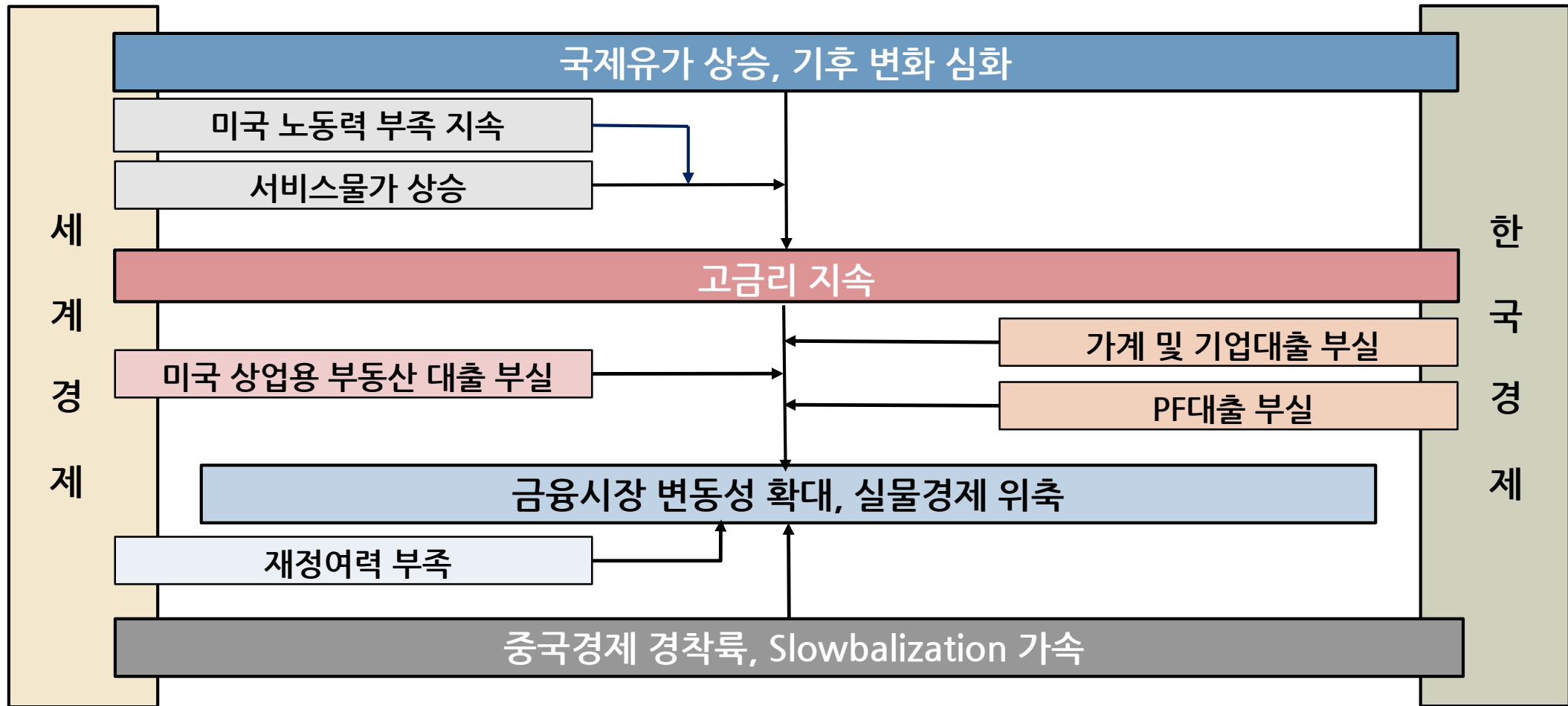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4)

New Normal Season 2

- 2024년 국내외 경제는 New Normal 시대와 다른 새로운 균형 진입 예상
- New Normal 시대에 비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금리는 높아질 전망(국제유가 안정이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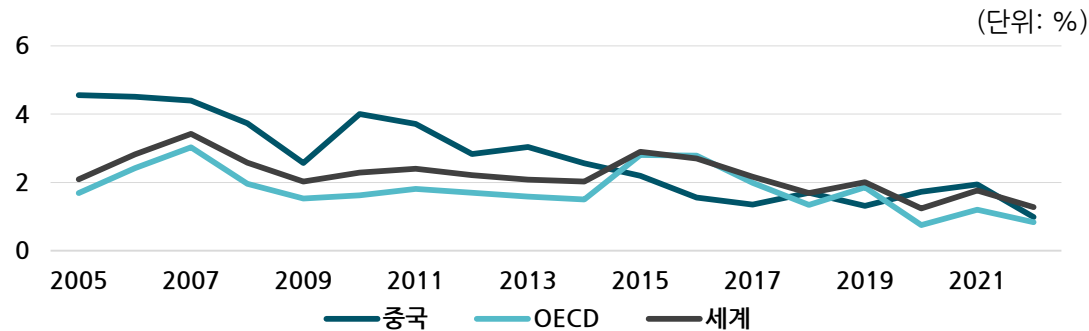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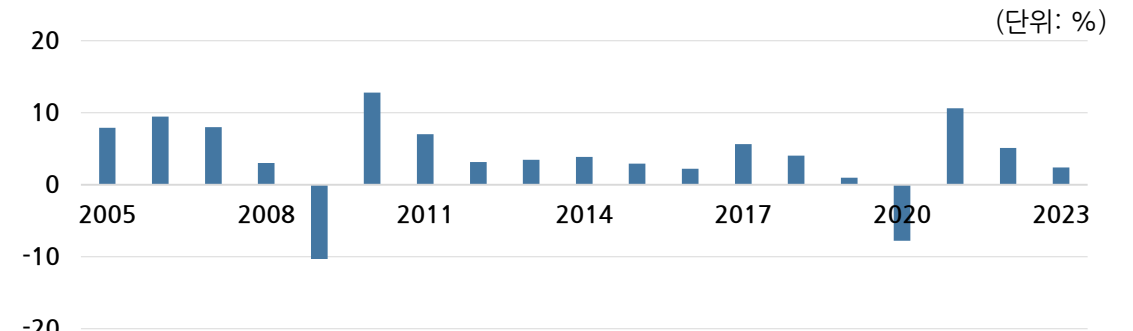


[참고] Slowbalization 및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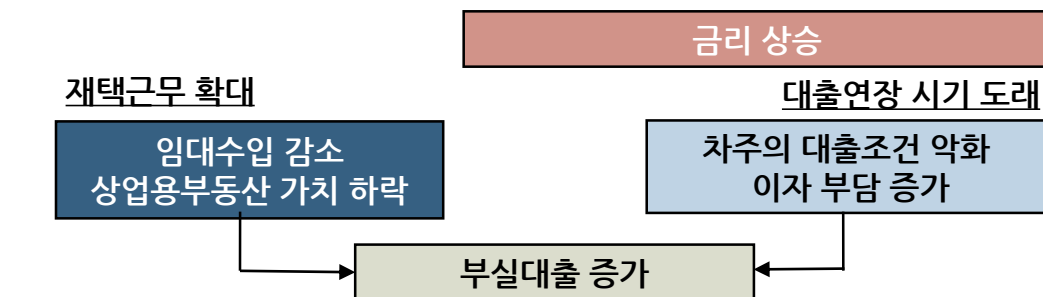
Slowbalization(FDI)



Slowbalization(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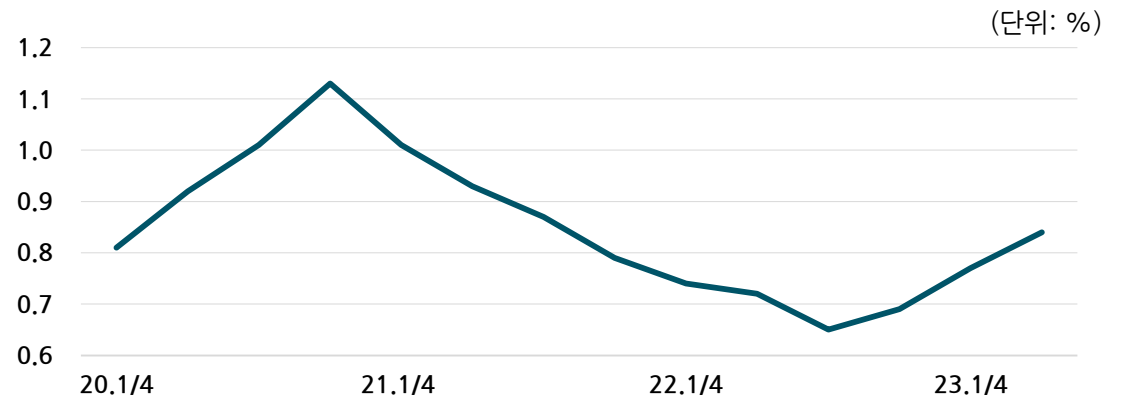


미국 상업용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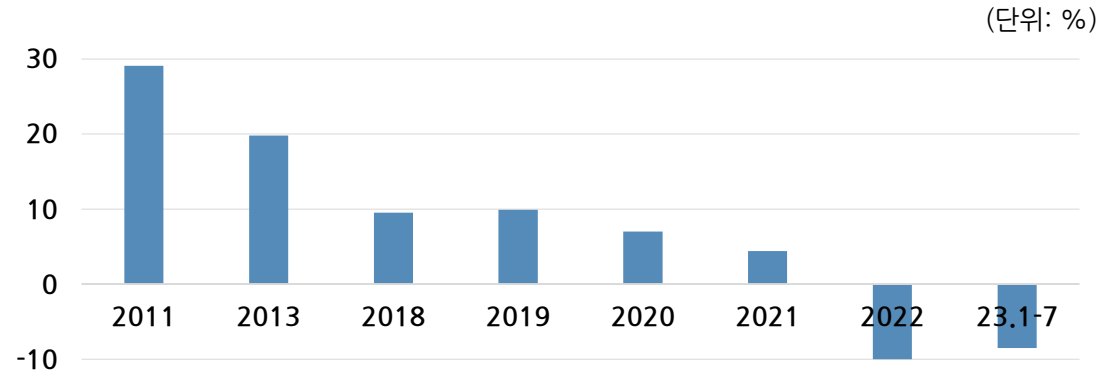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14개 소형은행 파산
- 현재 576개 은행이 상업용부동산 대출비중 가이드라인 초과
- 2025년까지 1.5조 달러 대출 만기 도래
- 소형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 80%

미국 상업용부동산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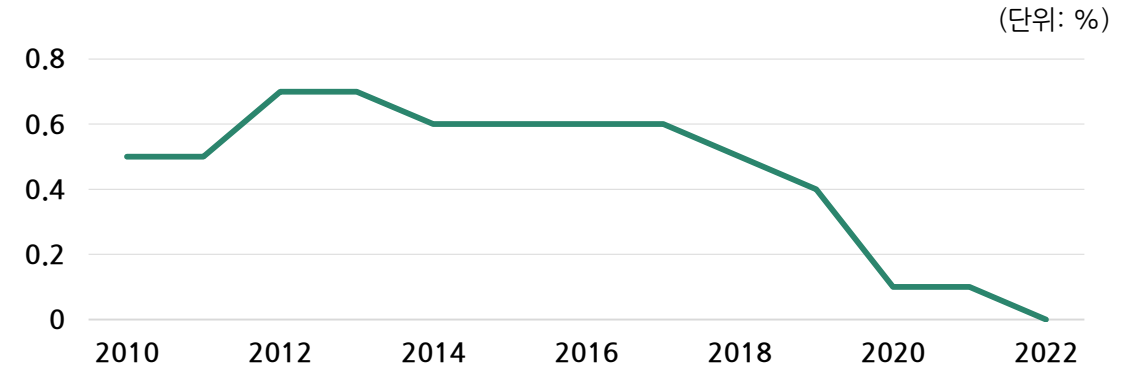
[참고] 중국경제 경착륙

중국 부동산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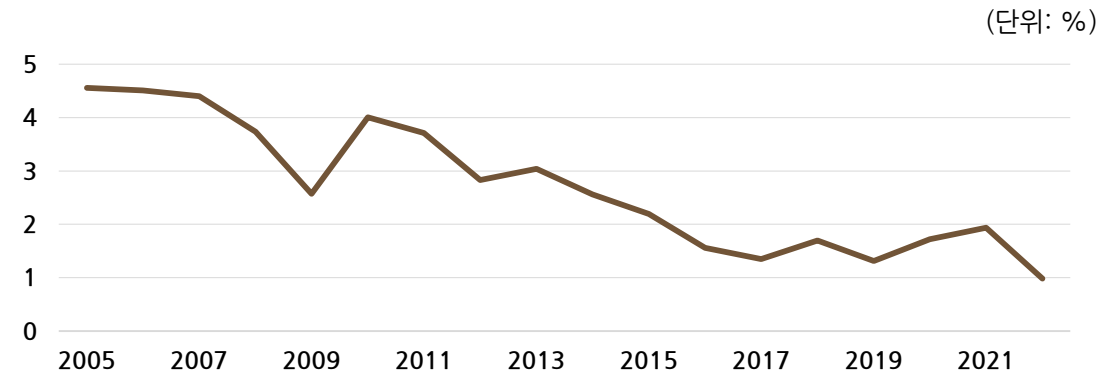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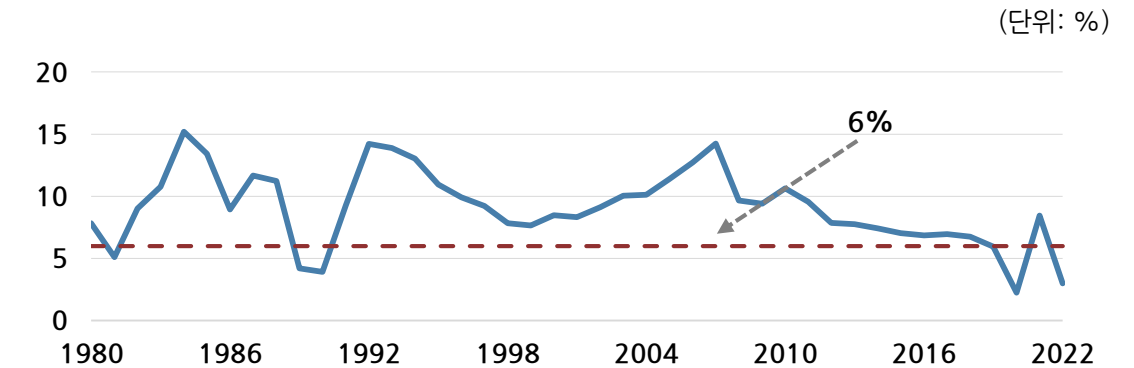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중국 외국인직접투자(GDP 대비) 비율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중국 경제성장률



자료: World Bank Statistics

[참고]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PF대출 부실

GDP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2019	95	101	56	150	63	102	75	76
2022	105	120	61	158	68	118	74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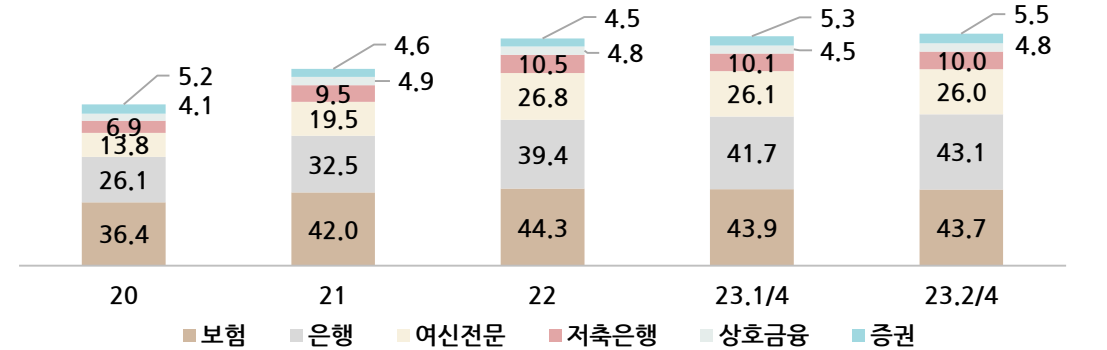
구분	EU		영국		프랑스		독일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가계	기업
2019	57	104	84	71	62	151	53	69
2022	57	105	84	68	66	162	55	73

자료: BIS Statistics

- 가계부채 보다 주택가격이 선행
-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전무

부동산PF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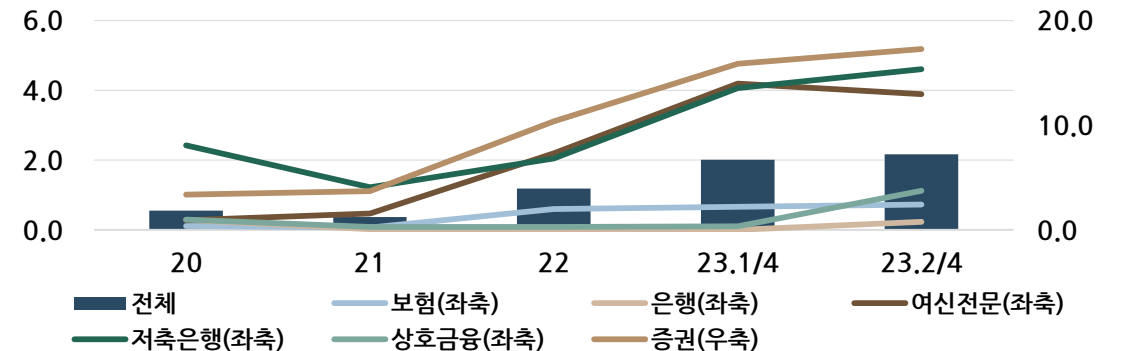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영현 금융시장분석실장

2023.10.5.



목 차

I. 성장성

II. 수익성과 건전성

III. 주요 이슈와 과제



I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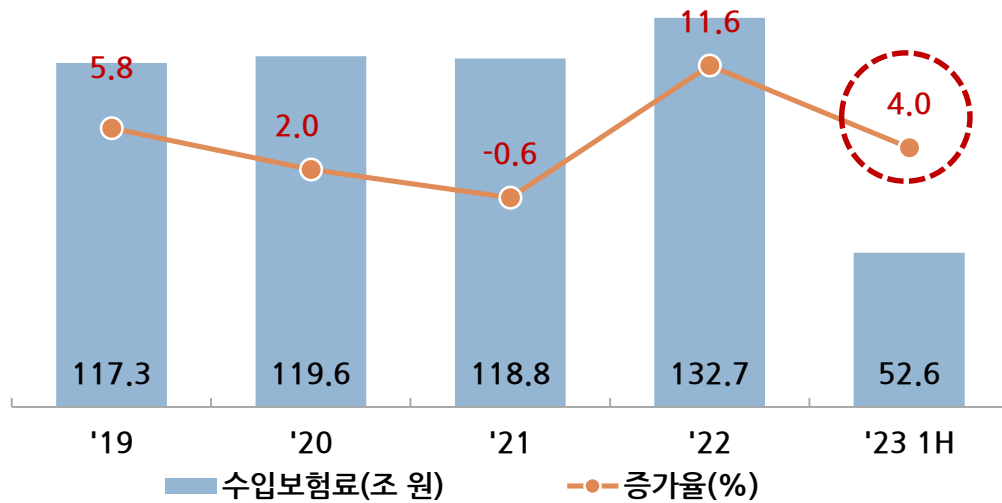
1. 생명보험 동향
2. 손해보험 동향

3. 보험료 전망

1. 생명보험 동향 ① 보험료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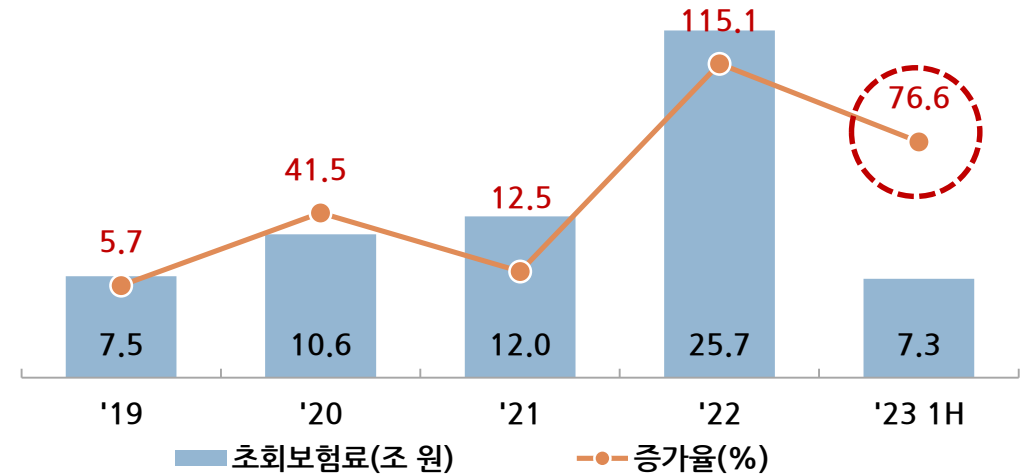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4.0%(YoY) 성장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76.6%(YoY) 성장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개인)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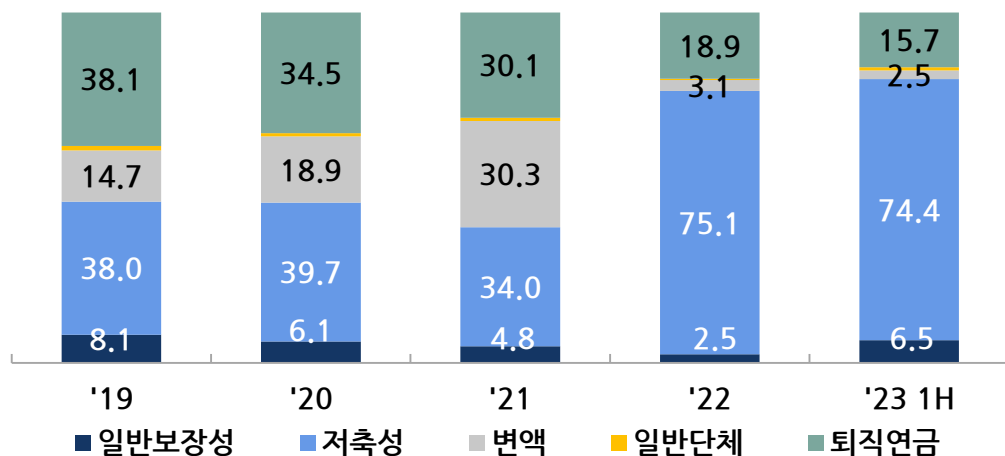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생명보험 동향 ② 초회보험료 분석

- 2023년 상반기 변액보험은 감소했으나 보장성과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
 - 보험계약마진(CSM) 및 유동성 확보 목적의 공급과 연금 및 저축 상품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 대형사의 점유율 상승세가 2022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음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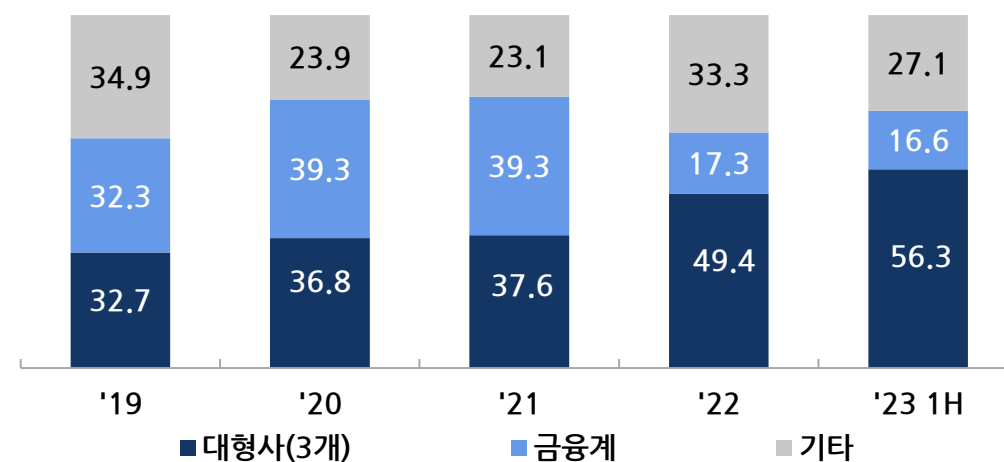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회사유형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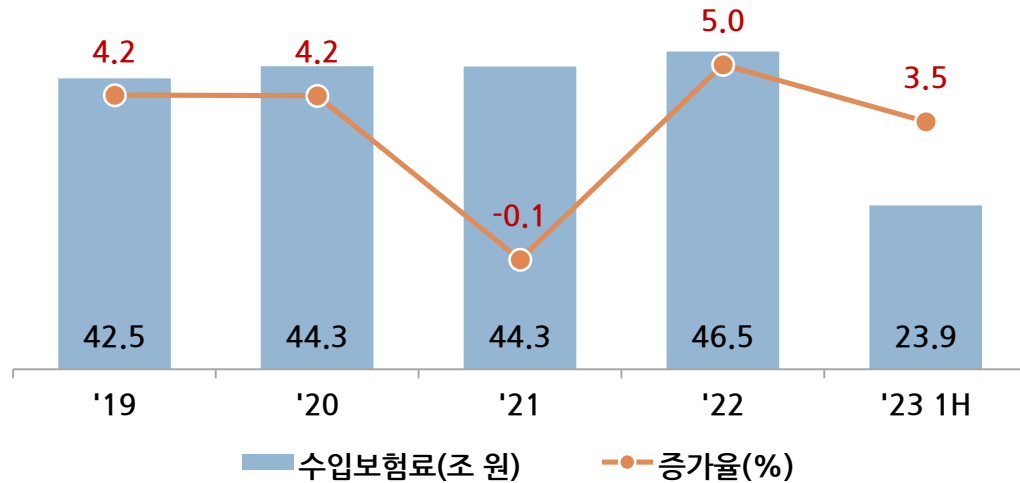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생명보험 동향 ③ 보장성보험

· 2023년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확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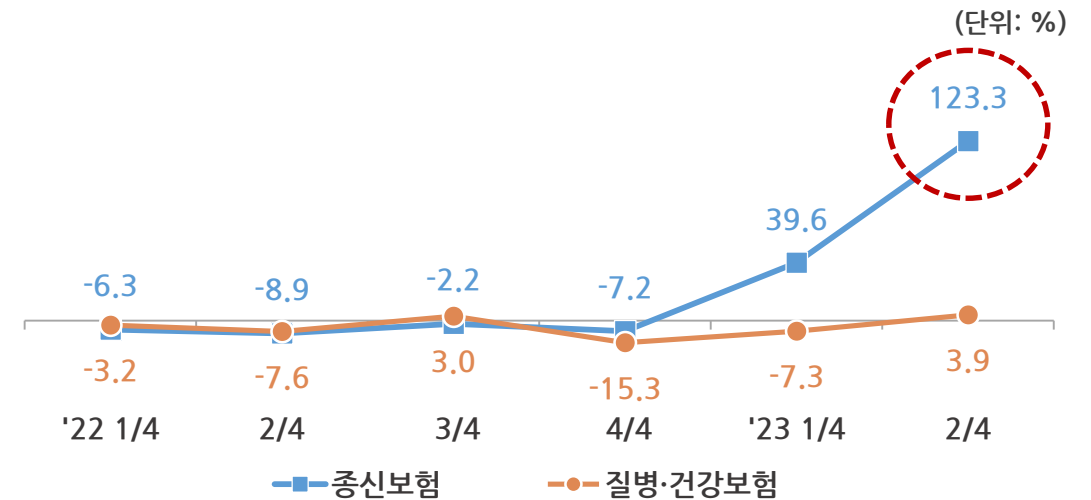
-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강조한 전략이 수요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단,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2023년 9월부터는 종신보험 판매 감소가 예상됨

일반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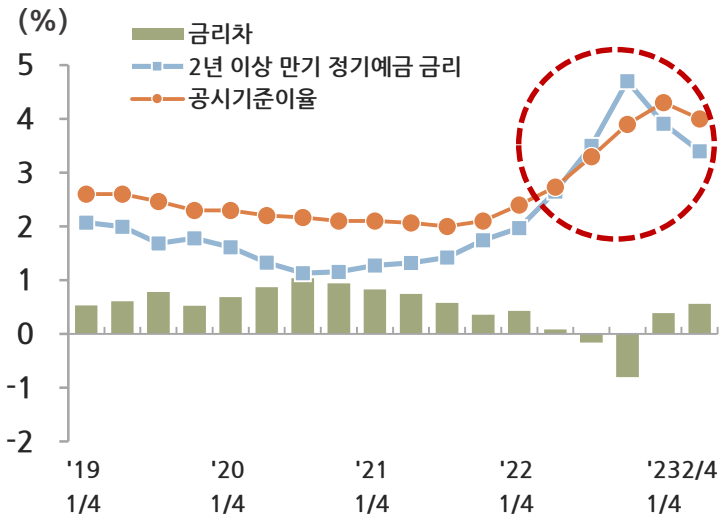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생명보험 동향 ④ 저축 및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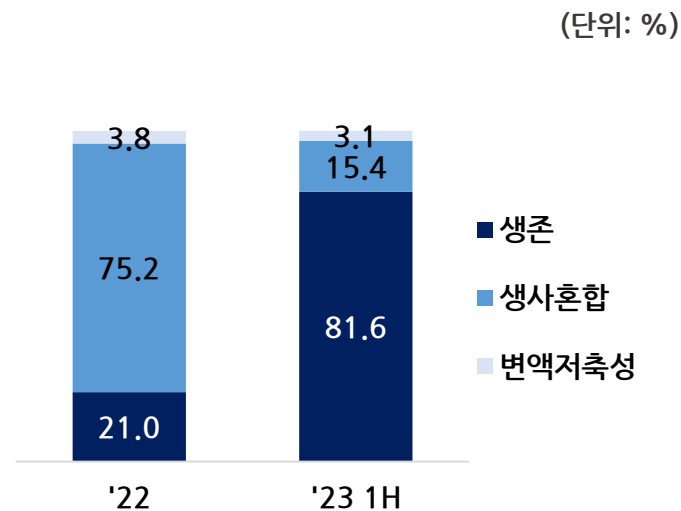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되었으나 향후 성장세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사의 유동성 확보 목적과 고금리 장기 저축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임
 - 2022년에는 주로 생사혼합보험이 판매되었지만, 2023년 상반기에는 주로 생존보험이 판매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며 감소세가 지속됨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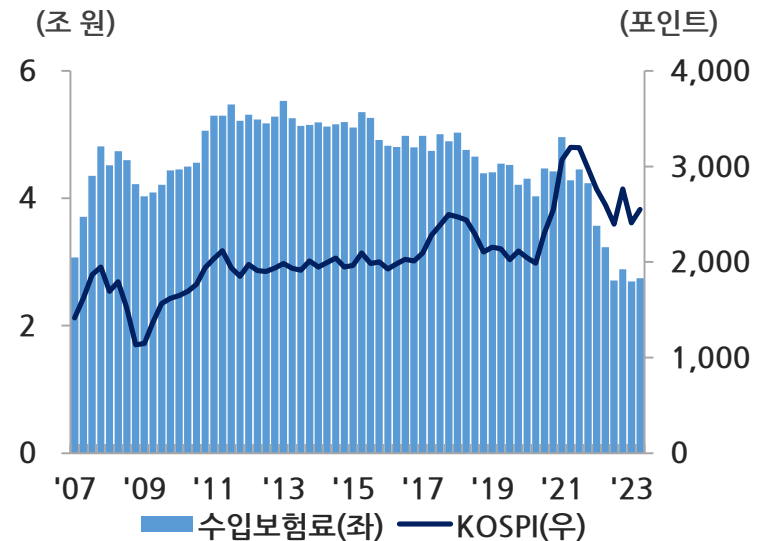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저축성상품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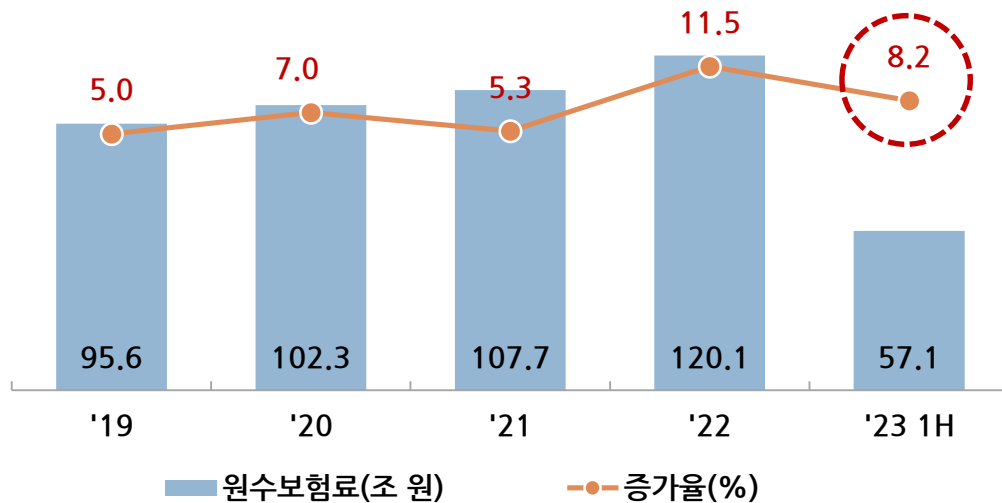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손해보험 동향 ① 보험료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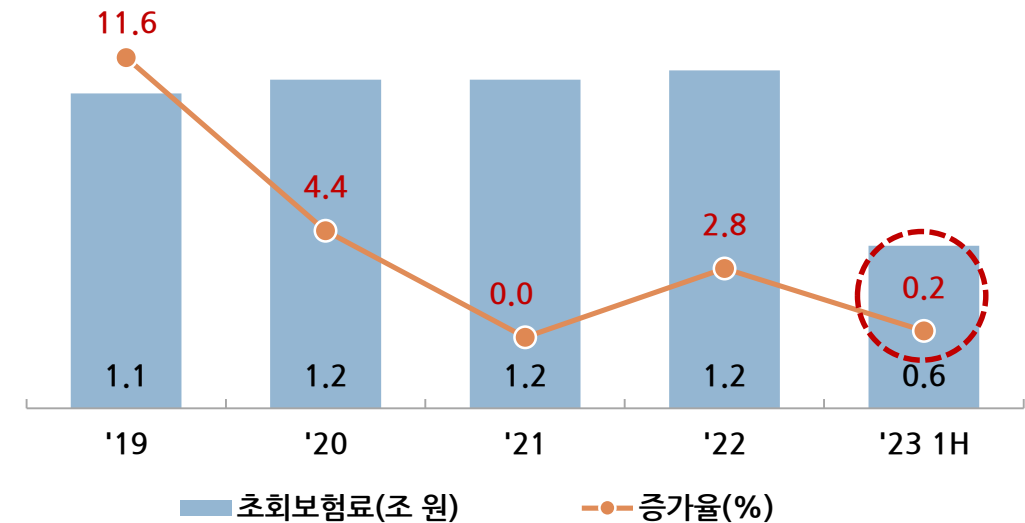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2%(YoY)로 고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0.2%(YoY)의 성장률을 기록함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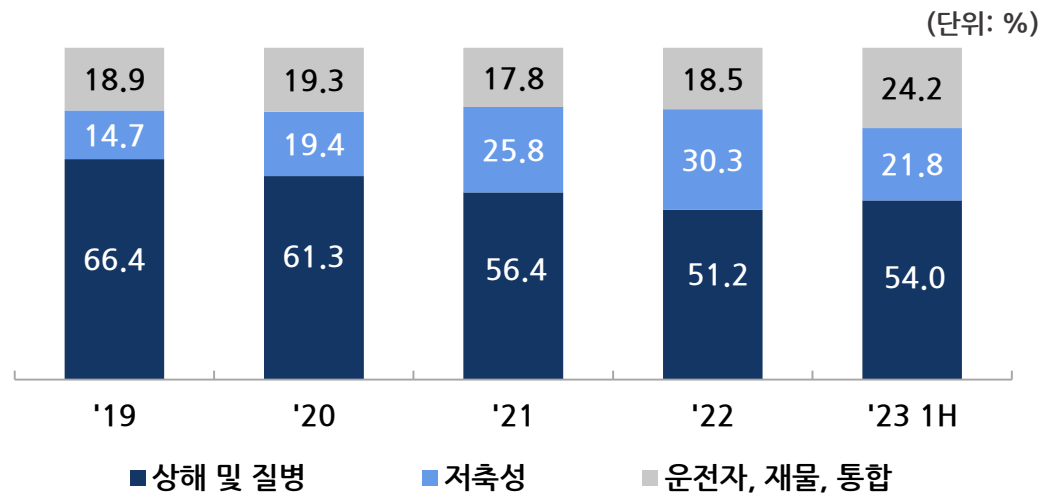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손해보험 동향 ②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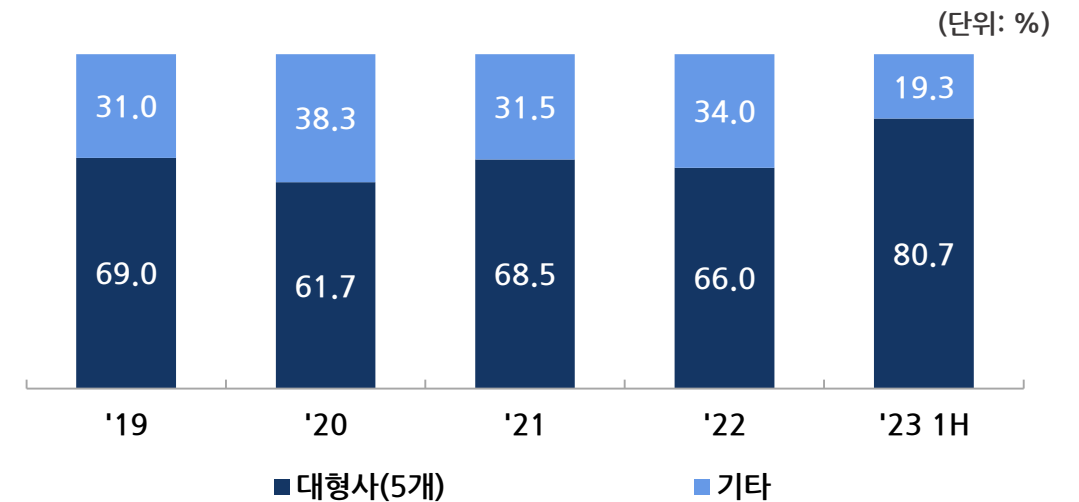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운전자·재물·통합 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대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함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종목별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회사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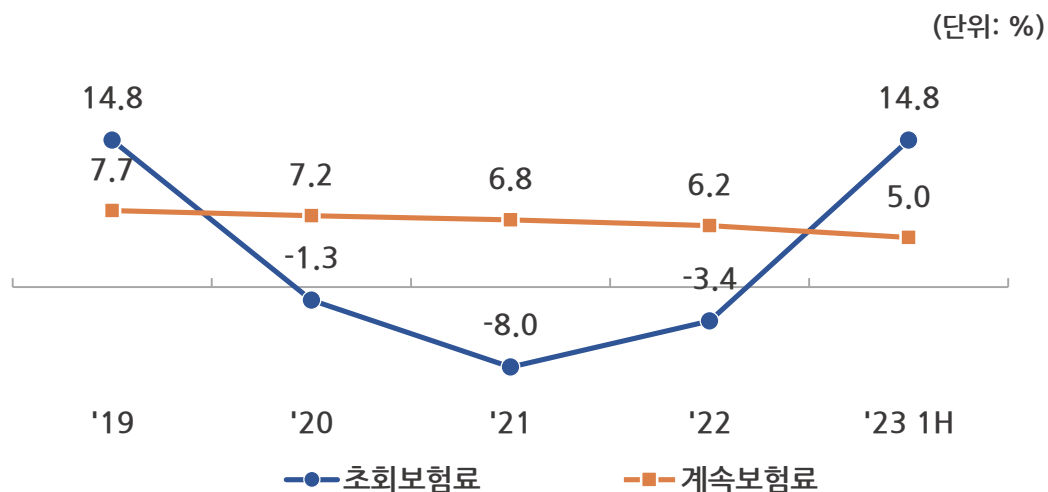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손해보험 동향 ③ 장기 및 자동차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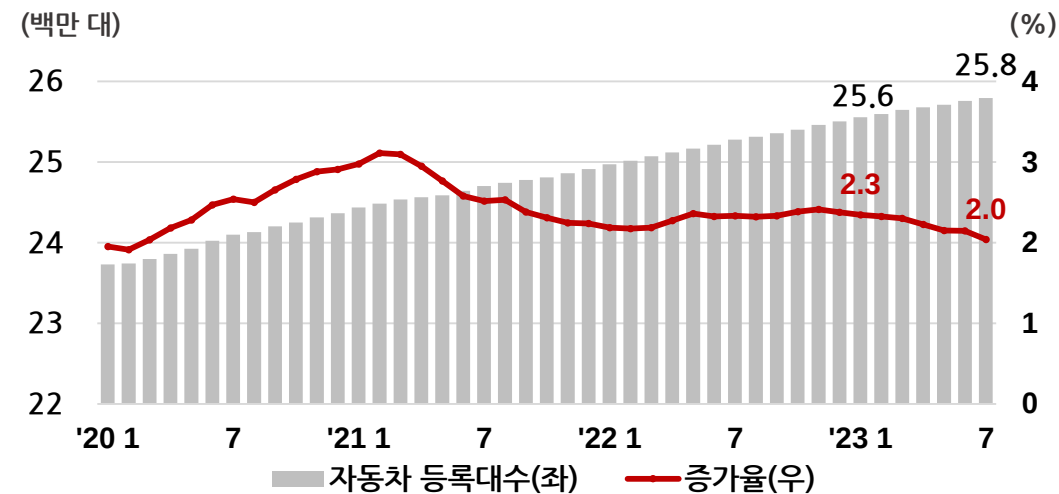
- 장기보장성보험은 2023년 상반기 초회보험료가 대폭 성장했지만, 계속보험료 성장률은 감소세임
- 2023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등으로 자동차보험 성장은 약화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도 자동차보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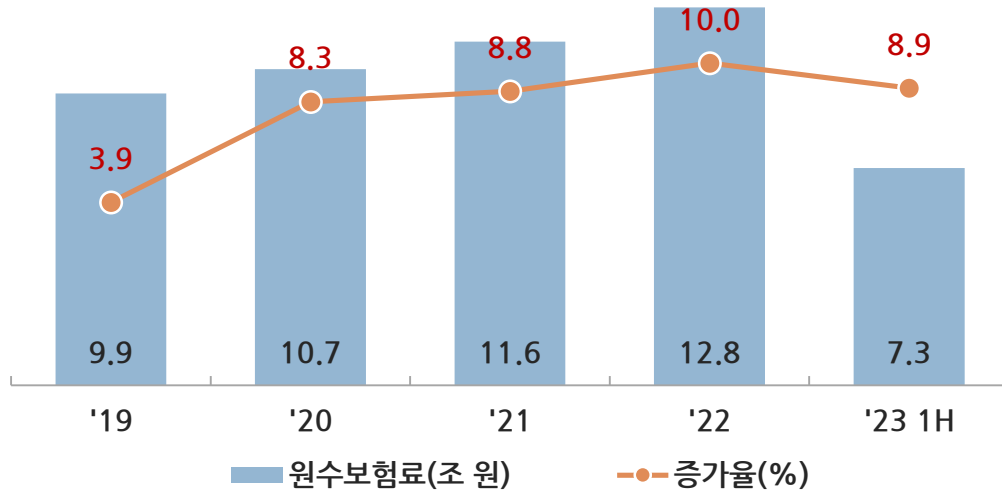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 손해보험 동향 ④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보증, 특종보험 성장으로 2023년 상반기 고성장을 지속함
- 수출입 물동량 증가, 신용보증 확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해상, 보증, 특종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구분	'22 2/4	3/4	4/4	'23 1/4	2/4
화재	0.1	-0.9	0.3	2.3	0.9
해상	28.4	10.6	25.4	21.7	3.0
보증	1.0	4.0	2.7	1.8	15.4
특종	8.7	10.4	9.9	5.9	11.8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보험료 전망 ① 주요 전제

제한적 경기 회복, 영업 경쟁 유지 등을 전제로 보수적 관점에서 전망

- 소비 회복과 부채 상환 등으로 가계의 초과저축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 초과저축은 금융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나 부채상환 등이 증가할 경우 감소함
- 2023년의 보험영업 경쟁이 2024년에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

제한적 경기 회복, 고물가·고금리

- ✓ 가계의 초과저축 감소
- ✓ 주가지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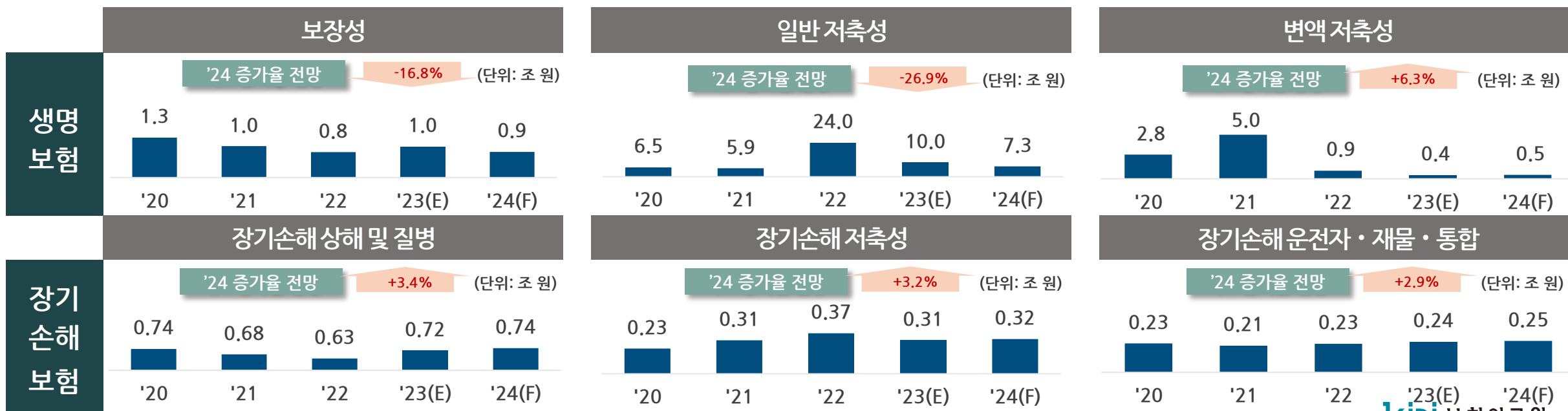
영업 경쟁 유지

보험산업 영향

- ✓ 저축성 및 변액보험 수요 둔화
- ✓ 보장성보험 쏠림 현상 지속
- ✓ 단, 금융 불안이 확대될 경우, 위험 회피 현상 및 예비적 저축 증가로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하고 저축성보험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음

3. 보험료 전망 ② 초회보험료: 종목별

- 종신보험 판매 감소로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성장률은 -16.8% 전망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은 역성장하지만 연금보험 수요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 예상
- 변액 저축성보험은 침체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장기손해보험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완만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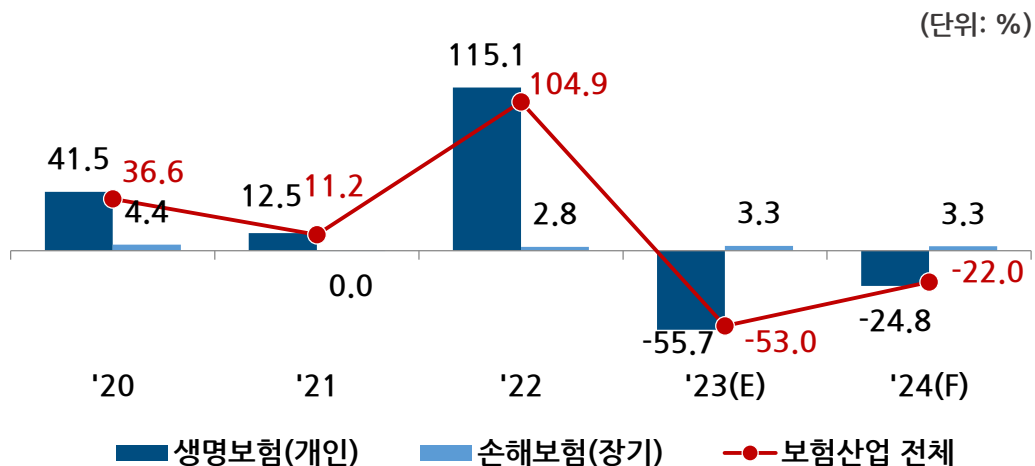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3. 보험료 전망 ② 초회보험료: 전체

- 2024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2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4년 -24.8% 예상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3.3% 예상
-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는 2023년 12.7조 원, 2024년 9.9조 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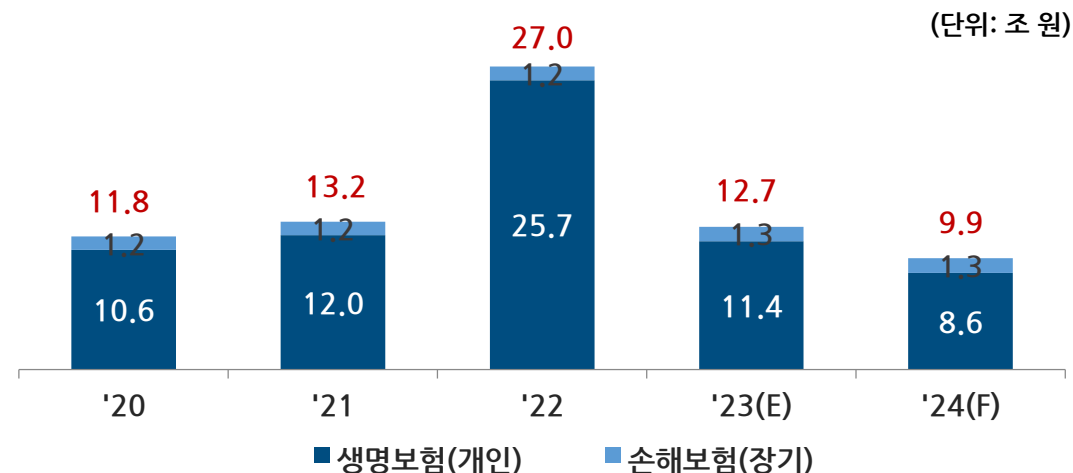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함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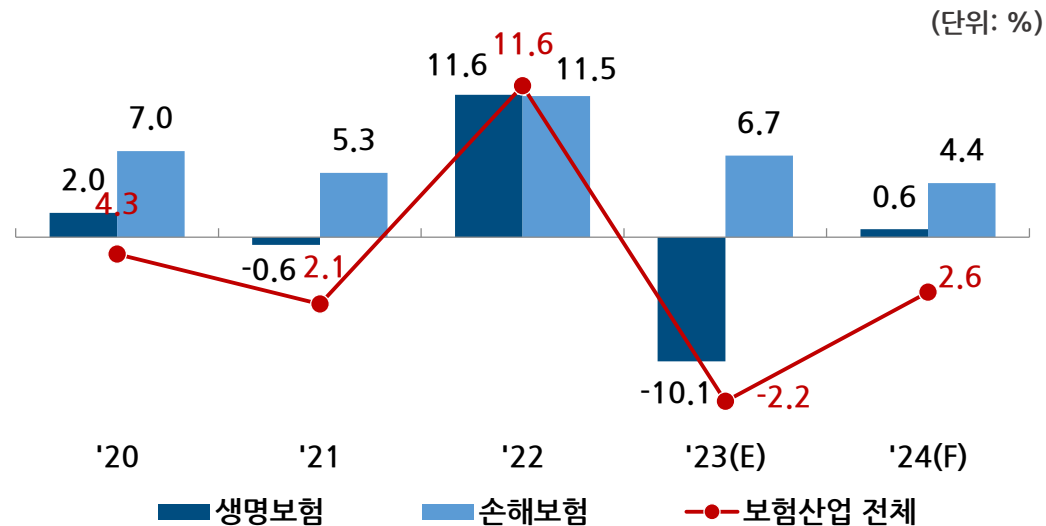


주: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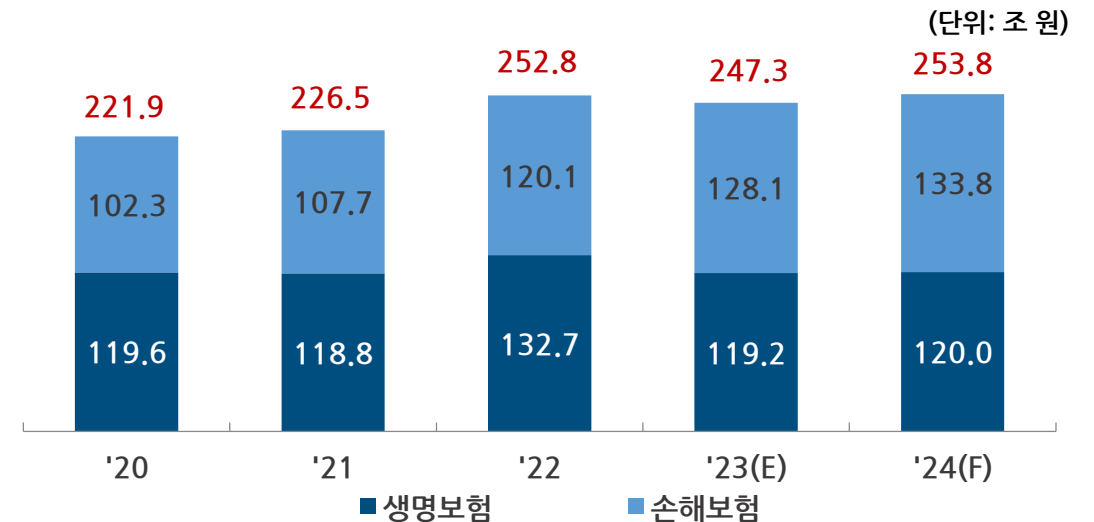
3. 보험료 전망 ③ 수입(원수)보험료: 전체

- 2024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3년 6.7%에서 2024년 4.4%로 성장세 둔화 전망
- 2024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53.8조 원 수준으로 전망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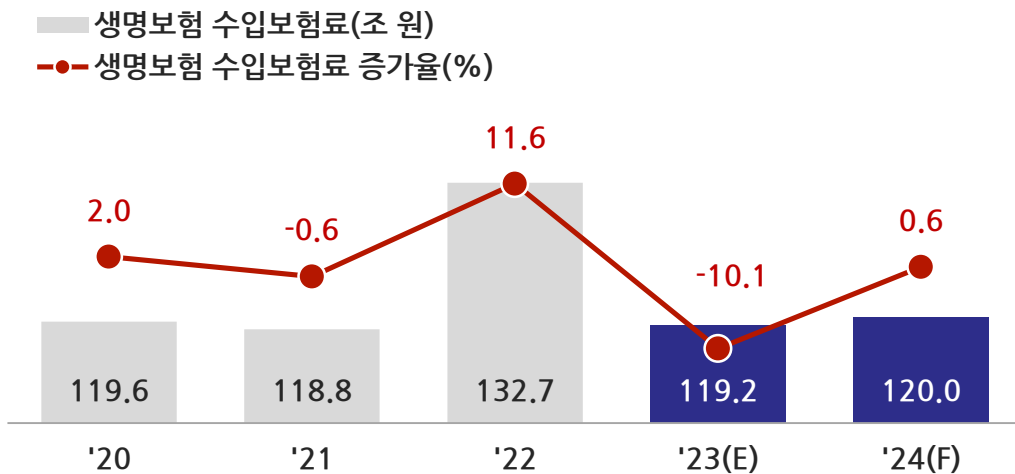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3. 보험료 전망 ③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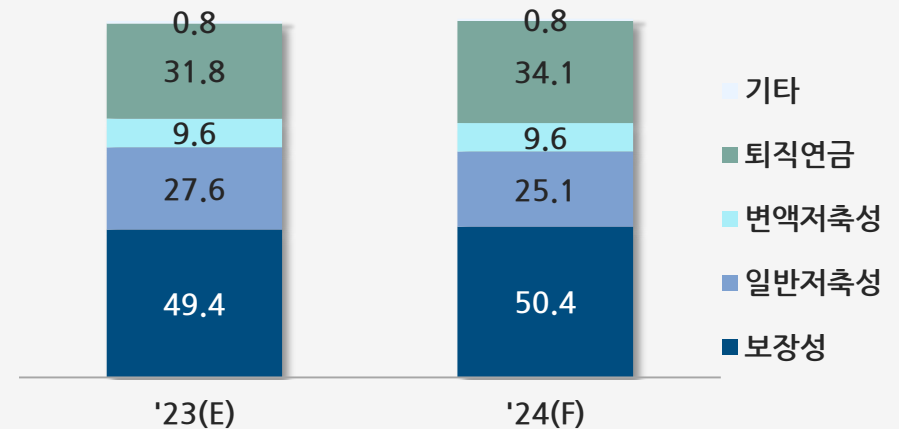
- 2024년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질병·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6% 증가할 전망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수요 축소에도 건강 및 질병보험과 갱신보험료 확대로 2.0% 성장 전망
 - 저축성보험(변액저축성 포함)은 가계 수지 악화 및 주가지수 정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6.6% 성장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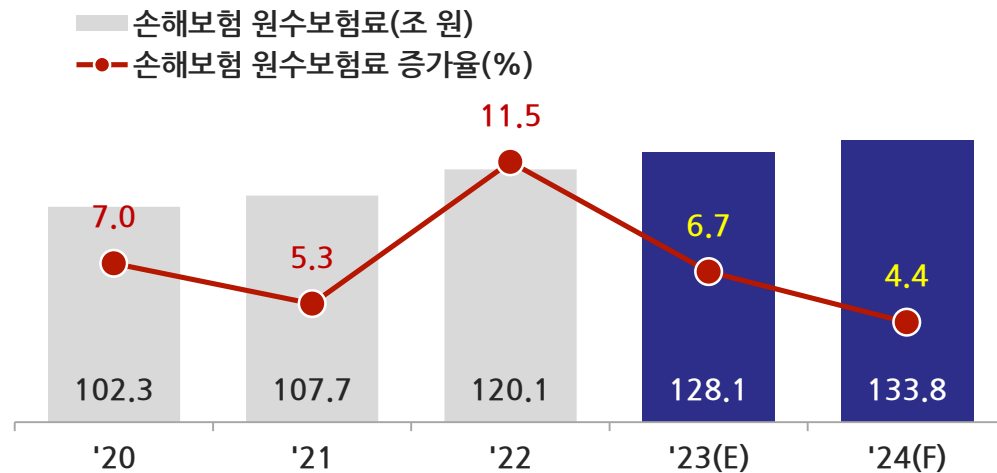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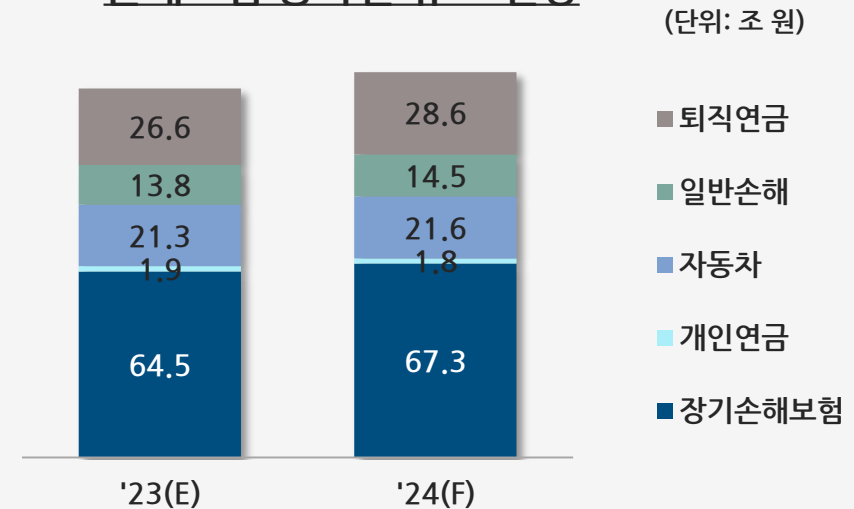
3. 보험료 전망 ③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 202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되어 4.4%로 전망
 - 장기보험은 상해·질병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4.3% 성장할 전망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1.8%)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5.2% 성장 전망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II

수익성과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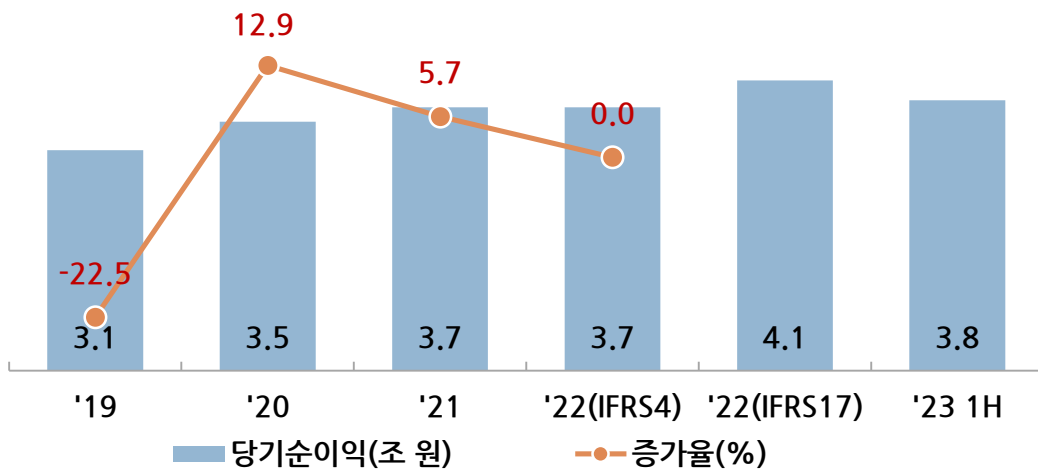
1. 당기순이익
2. 보험계약마진(CSM)

3. 진단과 전망

1. 당기순이익 ①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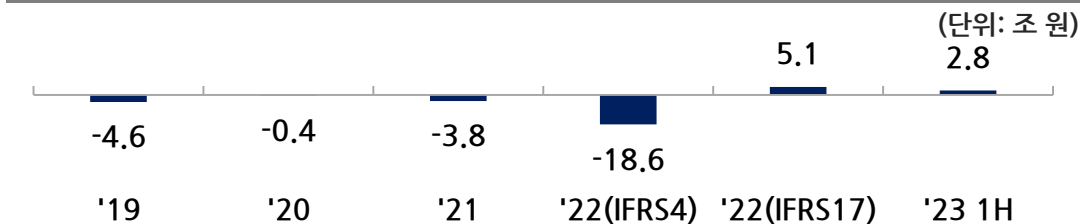
-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 등으로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8조 원으로 전년도(IFRS4 기준) 전체 당기순이익 3.7조 원을 상회함
- 2023년 상반기 보험손익은 2.8조 원, 투자손익은 2.1조 원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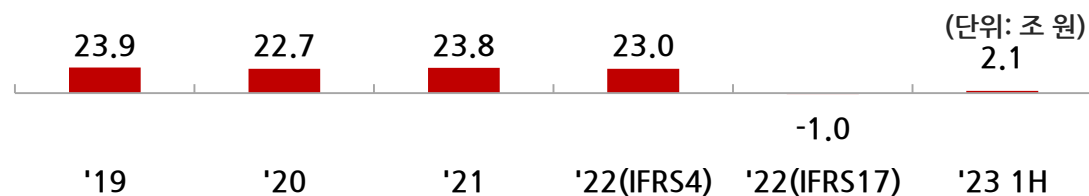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생명보험 보험손익



생명보험 투자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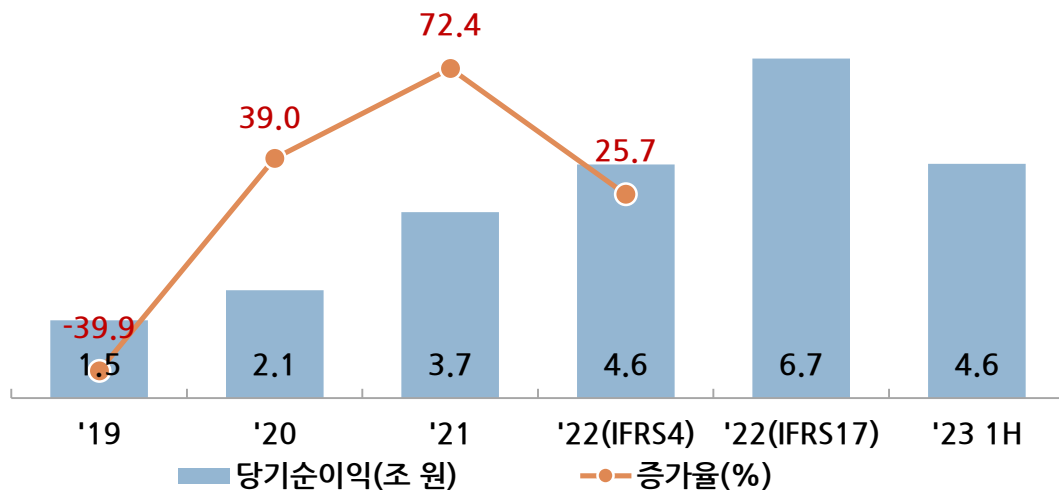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1. 당기순이익 ②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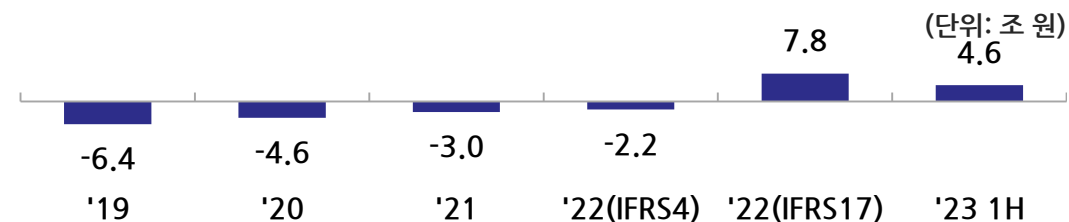
-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로 20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6조 원으로 전년도(IFRS4 기준) 전체 당기순이익에 육박
- 2023년 상반기 보험손익은 4.6조 원, 투자손익은 1.6조 원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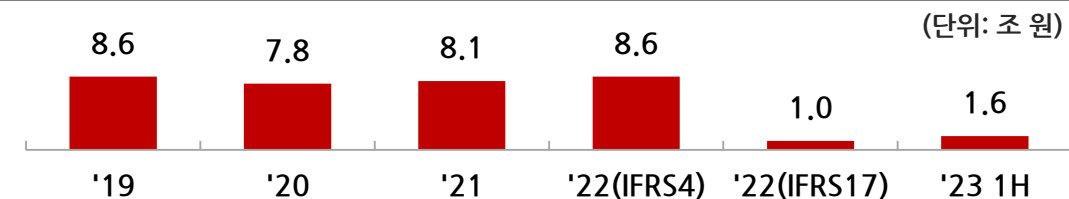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손해보험 보험손익



손해보험 투자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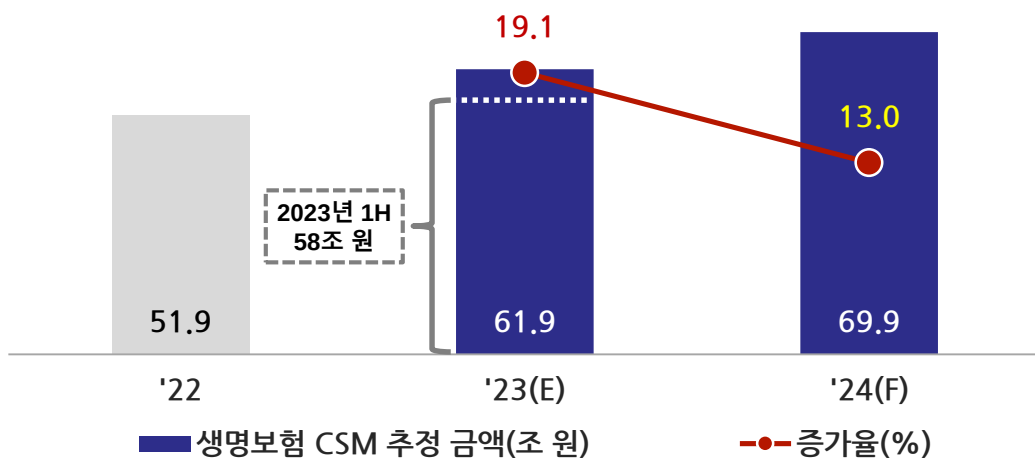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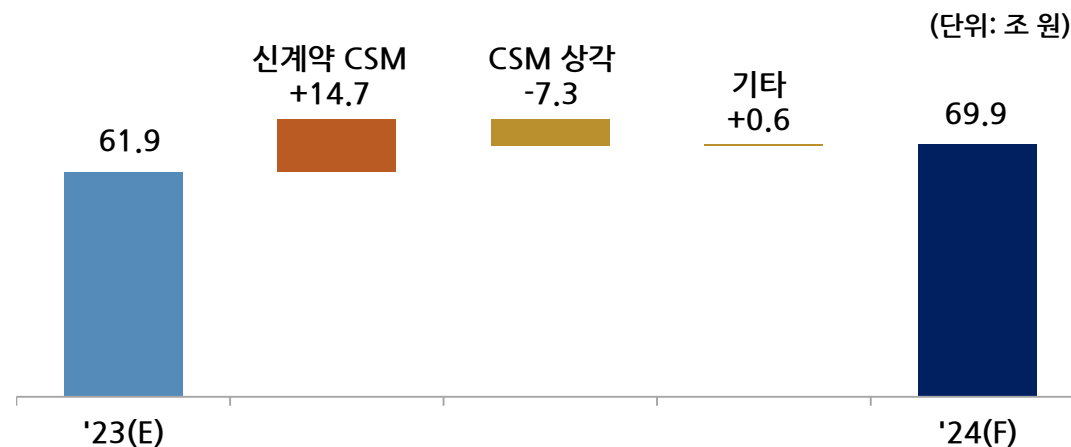
2. 보험계약마진(CSM) ① 생명보험

- 현재 CSM 추세와 향후 초회보험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의 대략적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023년 61.9조 원, 2024년 69.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
- 2024년 생명보험회사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4.7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규모는 7.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생명보험 보험계약마진(CSM)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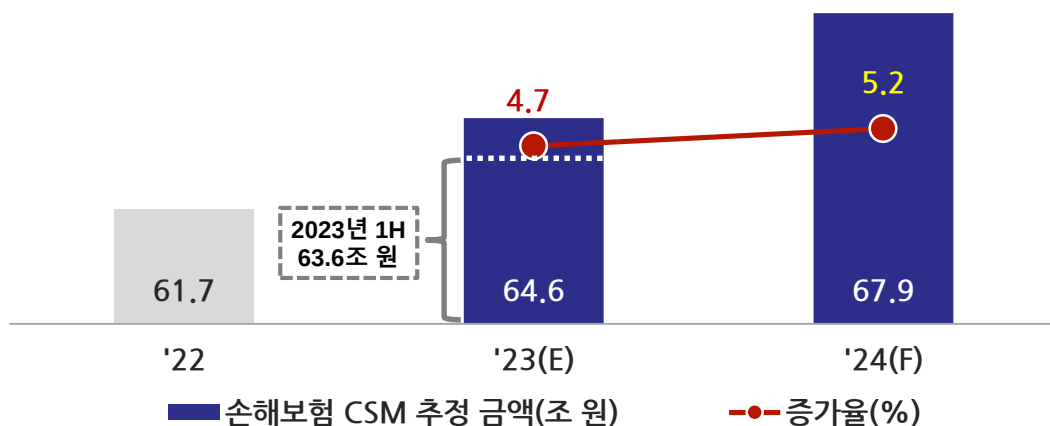
생명보험 보험계약마진(CSM) Movement



2. 보험계약마진(CSM) ②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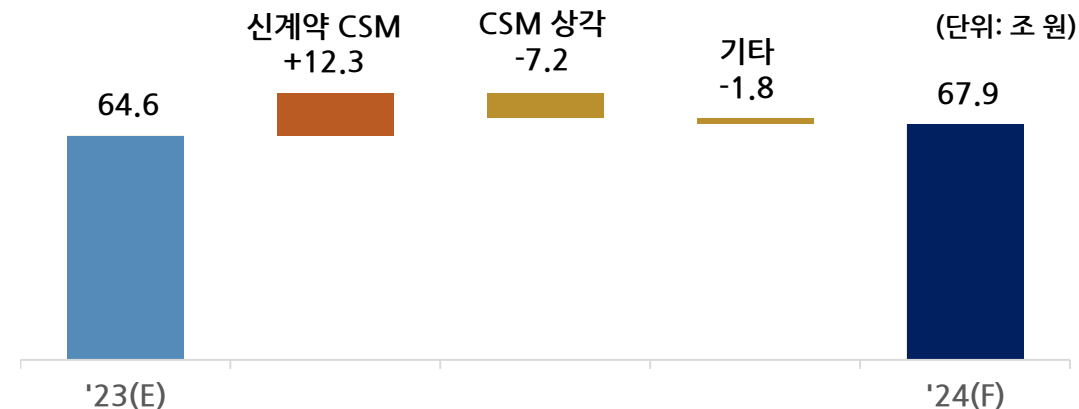
- 현재 CSM 추세와 향후 초회보험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손해보험의 대략적인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023년 64.6조 원, 2024년 67.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손해보험회사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2.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규모는 7.2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손해보험 보험계약마진(CSM) 전망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함

손해보험 보험계약마진(CSM)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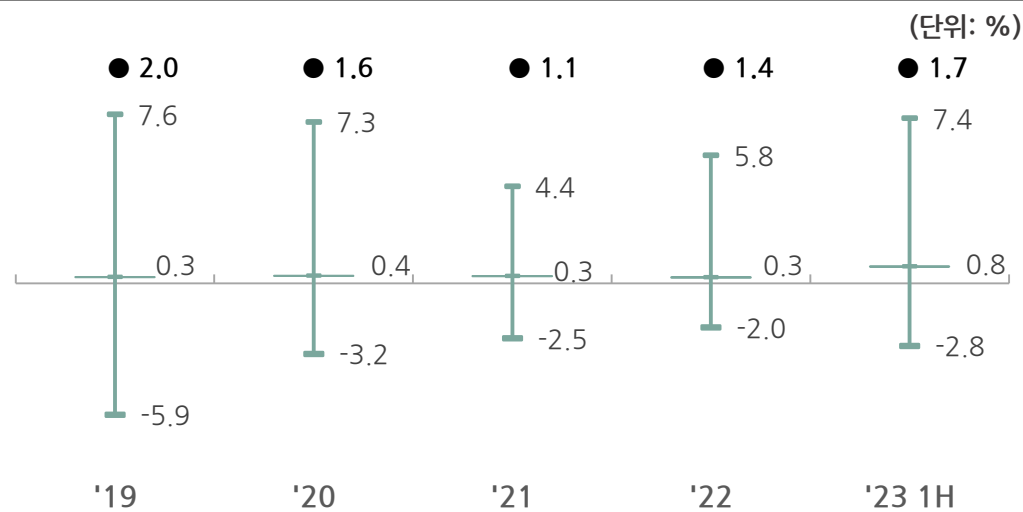


주: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함

3. 진단과 전망 ①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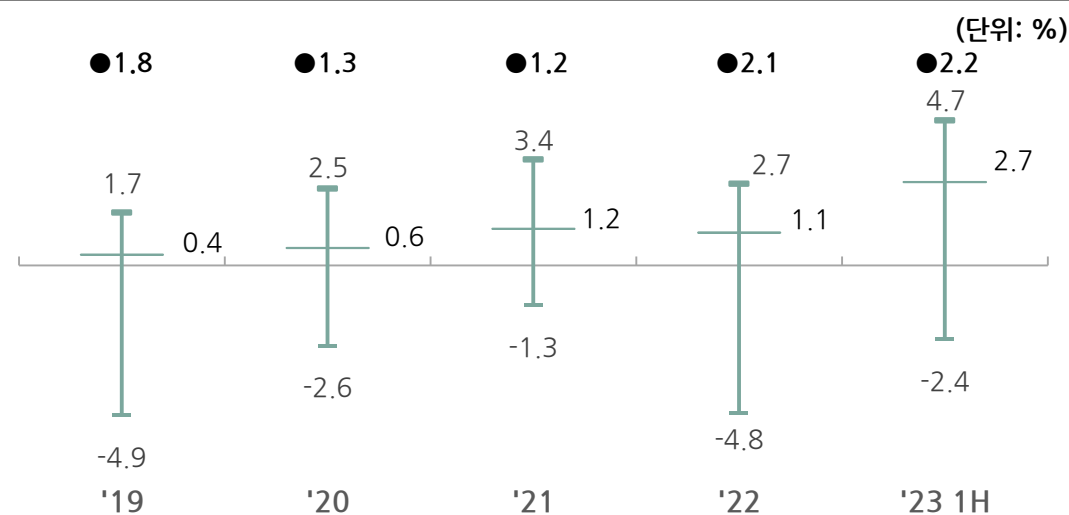
- 높은 CSM 성장률로 인해 산업의 보험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손익의 변동성은 높을 것임
- 긴축 통화정책이 시작된 2022년부터 회사간 수익성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경향이 2024년에도 지속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손익 관리 역량에 따라 회사의 이익 규모가 변동할 것임

생명보험회사 ROA 분포



주: 1) ●는 표준편차 값임
 2) 차트는 ROA의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을 나타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ROA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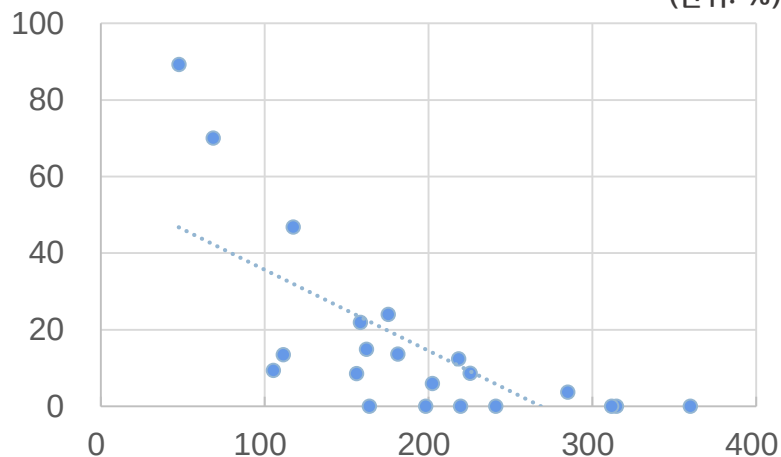
주: 1) ●는 표준편차 값임
 2) 차트는 ROA의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을 나타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3. 진단과 전망 ② 건전성: 생명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으며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큰 경향
- 이는 거시적 충격에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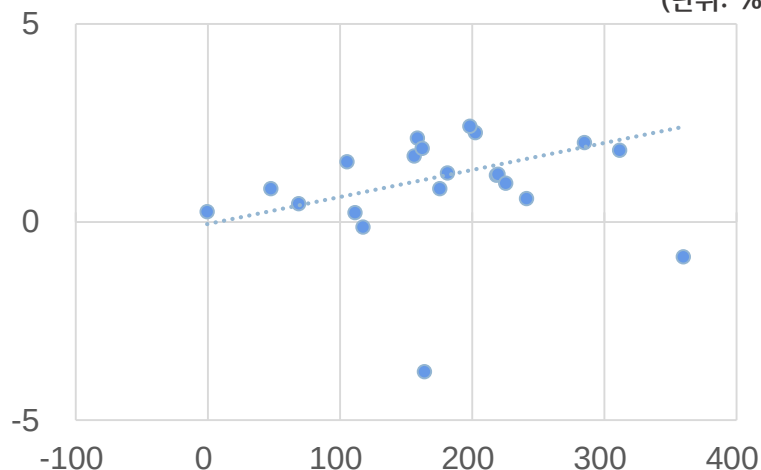
지급여력비율(X축)과 자본성증권 비율(Y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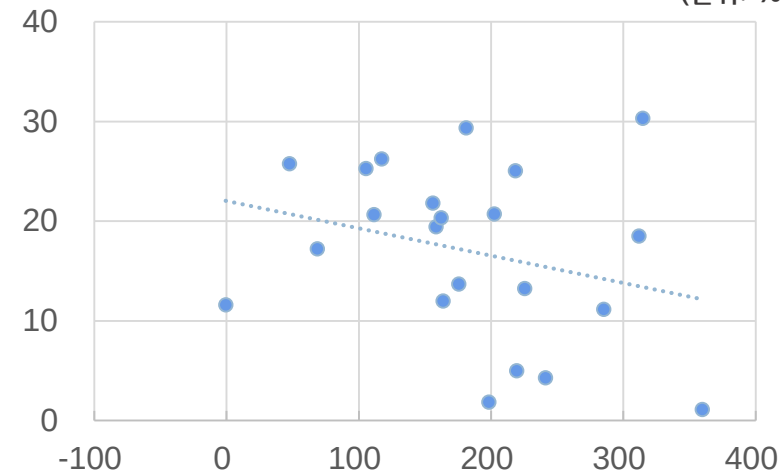
지급여력비율(X축)과 ROA(Y축)

(단위: %)



지급여력비율(X축)과 FVPL자산 비율(Y축)

(단위: %)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지급여력금액이 (-) 값인 푸본현대생명보험은 제외함
3)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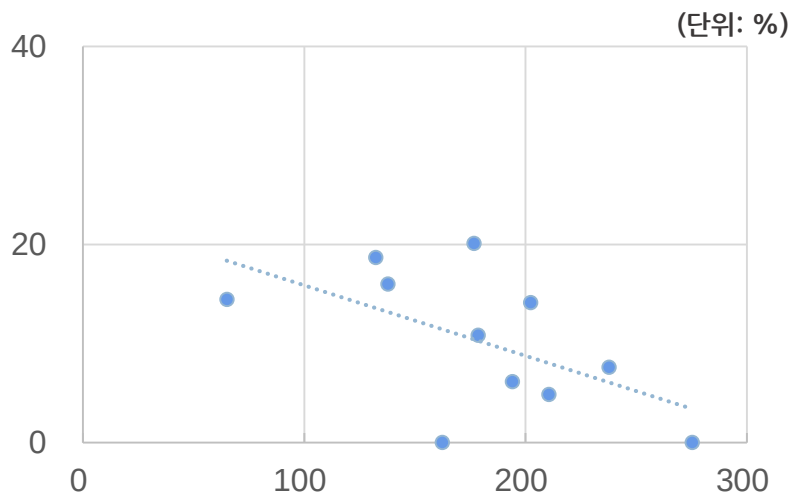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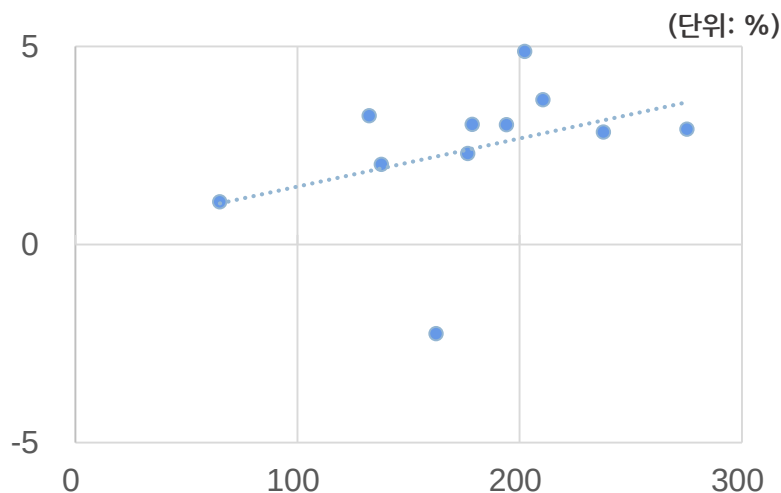
3. 진단과 전망 ② 건전성: 손해보험회사

-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으며 투자손익의 잠재 변동성이 큰 경향
- 이는 거시적 충격에 건전성이 낮은 회사의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
- 건전성이 낮은 회사들은 이익 유보를 극대화하고 자산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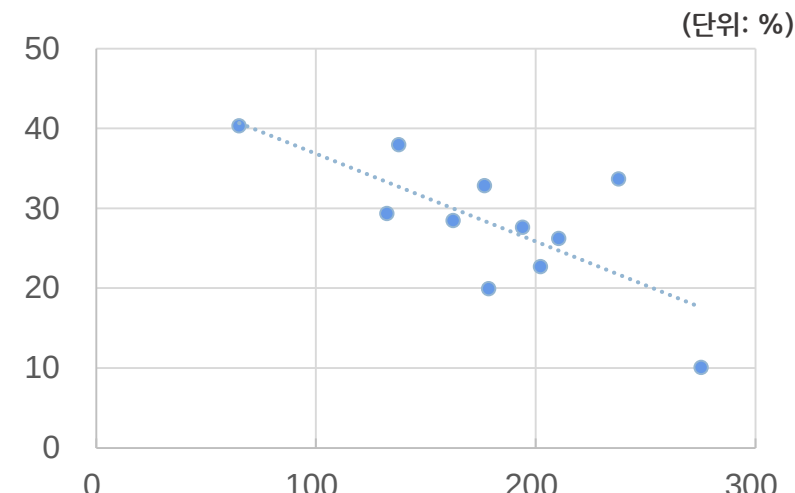
지급여력비율(X축)과 자본성증권 비율(Y축)



지급여력비율(X축)과 ROA(Y축)



지급여력비율(X축)과 FVPL자산 비율(Y축)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 1)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비율임
2) 2023년 3월 말 기준임
3)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 1) 2023년 상반기 기준임
2) 국내 일반손해보험회사 11개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Ⅲ

주요 이슈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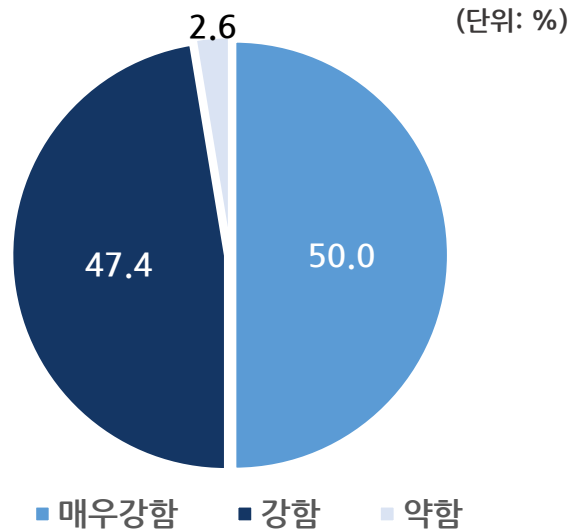
1. 영업경쟁 심화
2. 신채널 등장

3. 디지털 전환
4. 보험법률 개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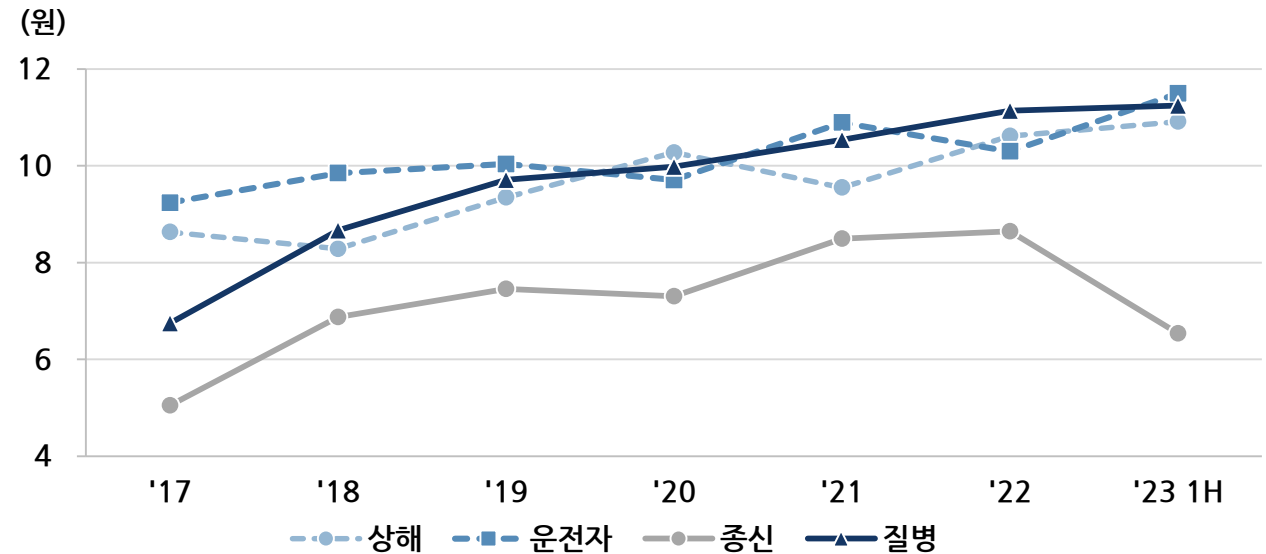
1. 영업경쟁 심화 ① 현황

- 변화된 회계제도로 인해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 대다수의 보험회사 CEO는 현재 보험영업 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
 -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 1원당 신계약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영업경쟁 수준 평가



보장성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대비 신계약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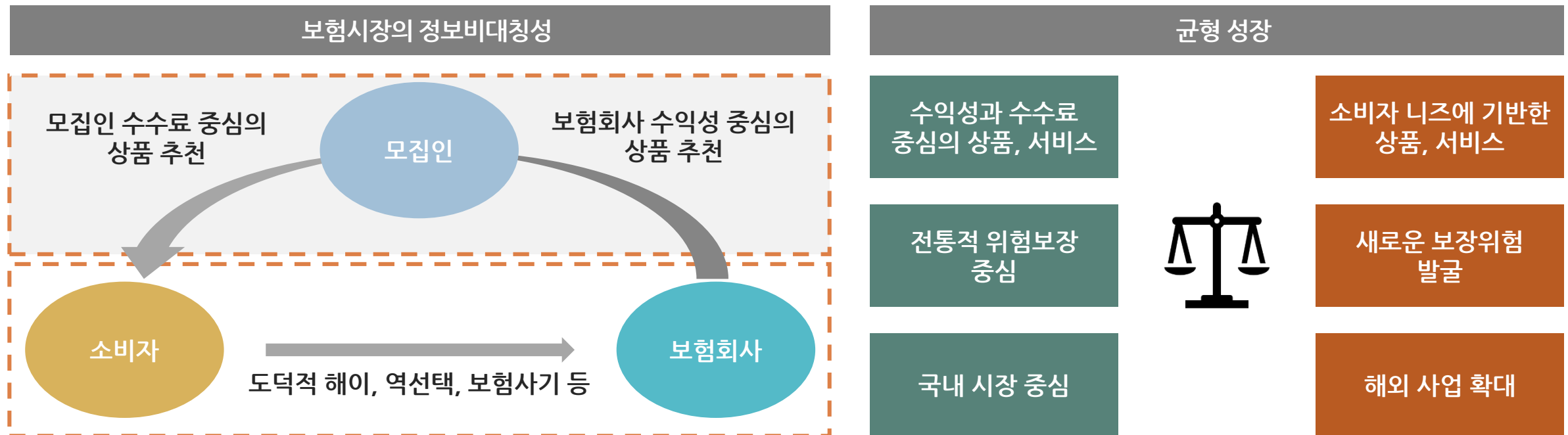


자료: 조영현·최원(2023.9), “2023년 보험회사 CEO설문조사”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영업경쟁 심화 ② 과제

- 보험시장의 높은 정보비대칭성에 기반한 공급·판매자의 전략으로 인해 영업경쟁이 심화될수록 특정 보험상품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
- 정보비대칭성 완화와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균형 성장**과 **소비자신뢰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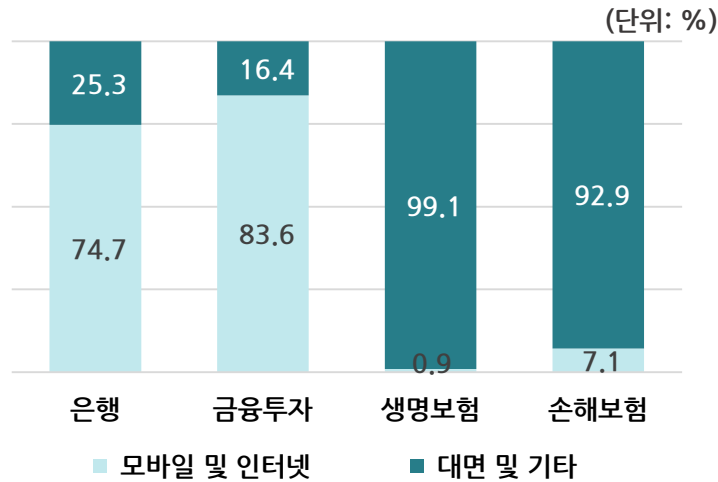


자료: 황인창(2022),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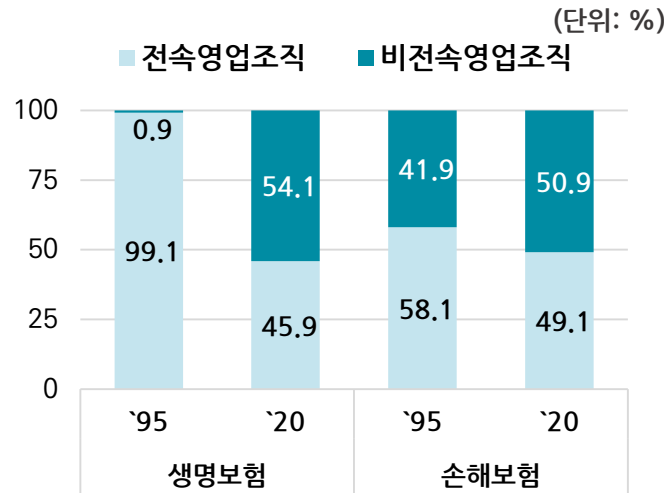
2. 신채널 등장 ① 현황

- (대면중심 영업) 사회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중심의 영업구조 형성
- (제판분리) 방카슈랑스, GA 채널 등 비전속영업조직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증가
 - 생명보험 '95년: 0.9% → '20년: 54.1%, 손해보험 '95년: 41.9% → '20년: 50.9%
- (신채널 유입) 대면채널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제공 예정

금융상품 간 가입경로 차이



보험상품 판매와 제조기능 분화



신판매채널의 등장

-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
: '보이는 TM' (2023년)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 '대면채널 + 디지털기술' (2023년)
-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2024년 시행 예정)

주: 1) 2021년 기준임

2) 은행은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임

3) 보험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KRX,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업무보고서

2. 신채널 등장 ② 과제

- (경영대응) 상품경쟁 및 혁신, 판매 전문성 강화,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 확보 및 발굴
→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
- (정책대응) 보험상품비교추천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 및 영향도 평가
 -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달성 여부 평가,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실태 평가

온라인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제도 시행안

운영방식

- 업무범위
: 보험모집 단계 중 비교/추천만 허용
- 상품유형
: 온라인(CM) 상품
- 상품범위
: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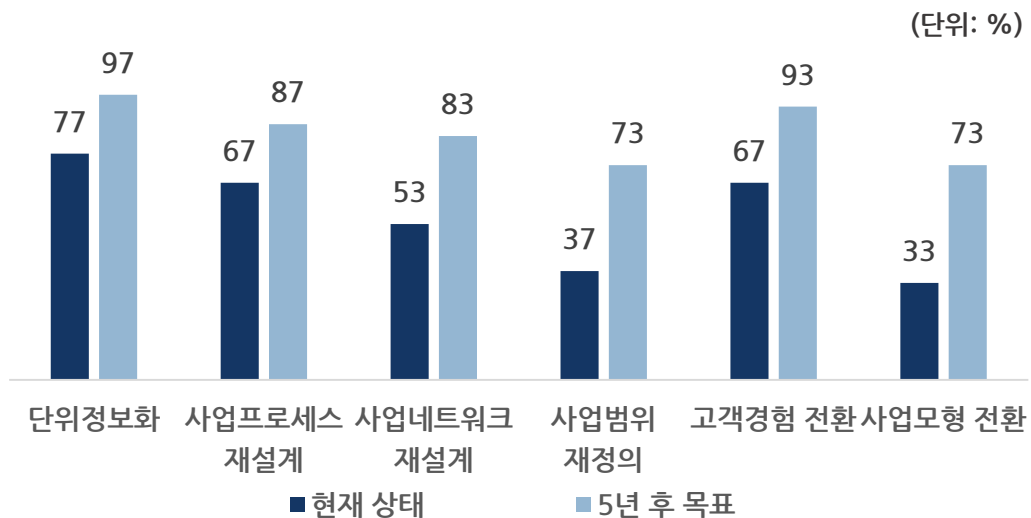
보완장치

- 소비자보호 장치
: 영업보증금, 수수료 한도 설정
알고리즘 검증, 개인정보 보호
- 공정경쟁
: 특정회사 편중 방지,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3. 디지털 전환 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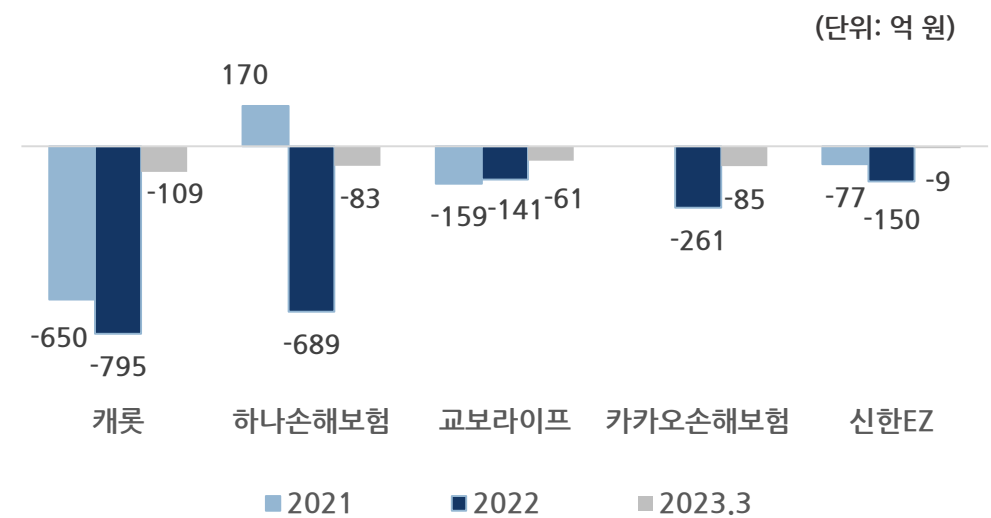
- 보험산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 수준이 제고되었으나, 사업모형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보험회사는 적자 상태이며, 사업모델 확장성에서도 한계에 봉착

국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현황



자료: 황인창·손재희(2023), 「보험산업 디지털전환 설문조사」, 『CEO Report』,

디지털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3. 디지털 전환 ② 과제

- 디지털 전환 고도화, 디지털 보험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의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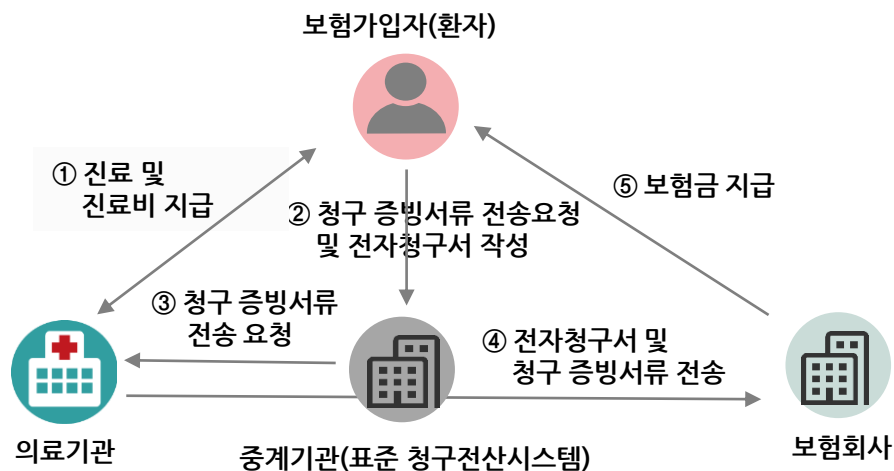
디지털 관련 보험산업 주요 이슈 및 과제

주요 이슈	정책 과제	경영 과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고도화 - 부분적인 효율화, 비용감소를 넘어서는 성과 기대	•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유인 제공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업무범위, 자회사, 업무위탁 등 규제 개선 •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에 대비한 보완장치 마련 • 정부의 각종 데이터 활용 정책*의 효과가 보험산업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지원 •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 제공	• 디지털 전환이 경영성과 및 시장확장 및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개발 • 파트너십 강화, 생태계 연결을 염두에 둔 디지털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임베디드 보험 활성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 • 내부 및 외부 데이터의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도 확대 •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소외 해소를 위한 상품 서비스 개발 및 내부 점검 강화
빅테크 보험시장 진출 - 생태계 연결, 공정경쟁 이슈 부상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각종 데이터 활용 및 흐름을 확대하는 정책* 증가 *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23.7),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고도화 추진(‘23.6),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23.9) 등)		
디지털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위험, 디지털소외 이슈 부상		

4. 보험법률 개정 대응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법령에서 정한 중계기관을 통해 운영·관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함
-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과 별도로,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정보의 공유 및 종합적 관리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운영 방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개정 항목

-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
- 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주: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 7. 4) 의결 내용

감사합니다.